

추억 (追憶) (회생기)

저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다.

내가 이 글을 쓰자고 상상이 앞서 평상 관다 앞이 캄캄하리 아득하리
그것도 그럴 막에 있는 것이 저지고, 득불고 희색 된 나의 과거에서 그 무엇이
찾아 내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85년이란 긴 해가 지난
오늘이 와서, 그 무엇이 물귀라 득고 허근 지난 나의 생애를 따듬어 보려
한다 그러면 그들 새삼스레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글을 쓰려는가? 래상도 모르고 글을 쓰는 일인가? 이 질문이 나를 괴롭
힌다. 쓸까 말까 해 유권거리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내가 여러
장이나 신문을 위해 이 글을 쓰는가 내게는 그런 ^{재료가} 없었다 그저 나의 과거를
내 자신을 위해 생각 나는 대로 적어 보려한 것 뿐이다 누가 읽어 볼지
그다면 보여줄 수도 있라 나의 과거를 세밀히 쓸 수 없다 그저 대충 쓴다
고양 사 사 사

본인은 1910년 7월 6일 (유력) 함북중성군 제해면 봉산동 민중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본래가 마르 일제가 조산을 함 ^영해라.

봉산동을 산간 벽지라 땅이 좁고 험악하고 들이 많아서 1여 농사는
못 하고 주르르, 옥수수, 보리기라 작물들을 심는다 농민들이 힘이 희드록
본 몸일 고된 일은 라면 늘상 불리 그 개를 넘기기 힘들다 그래서
초근무리로 부르기도 식량을 보한다 그러는 제나라, 제량, 제사만이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오손도손 수십년 살아 왔다

나의 부모도 불을 백이나 일곱 식구가 삼간 초목에서 1여름까지 살았다
큰 딸이 개나우 죽어, 뽕나무 한대 때기러전, 들각 람 이것이
흥흥이 우리 집 재산이다 우리 집이 산 밑에 있었다 어느 때 여름이
큰 흉수가 나서 종성군 일대를 휩쓸었다 이때 산태가 비리는 야량이
우리 집이 물리방 무너졌다 이런 사건이 님이 왔었다 4말이지 1말이
있었다 2년 온 식구가 풍산 할 수로 있었다 짐을 감관 수리해야
했다 그래서 조부가 짐수라든 라저리 산에서 나무를 채를 1여여 왔다
공고름끼로 이것이 순사놈은이 눈에 띄어서 조부가 일분형 죽은이 가서
3개월 강제 노동은 했다 생전 그 누구를 꾸짖이 양전 할아버지 짐기
들라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직한라장 적으로 놔두어 우리 나라이
와서 제법대로 좌지해 왔다. 저 끝이 사남아서 여기로 가인
하겠다'고 라신다

조부의 이 말씀이 우리집이 이사하게 된 동기의 하나라.

조부는 한문이 아주 거역할 문이다 늘 손이 책을 들고 있었 라 맘에
취시면서도 끈속이 글읽으시는 것을 내가 다 이 때 들었 라 나로 조부에게서
한자를 배웠다 조부는 나 보고 신하로 양심있는 사람이 되라 항상 가르
치시었다. 조부는 유교를 독심하게 삼기든 문이 없다 그림이든 물귀하고 한 때
이런이 같나시었다. 이 때 문이 순사님들이 조부에게 늘 들고 있었 다 이
문치를 보러 없는 조부가 늘 물안라게 지내었다

저렴은 볼수 없는 음권상이지만 전에는 복문의 제사를 지내 장년 후손은
(기신을 청하는 등) 쇠이러니 봄이 되면 립춘방이라는 것을 쇠서 임구에
붙이곤 했다. 그 때 우리 마을에는 후손이나 립춘서를 쓰는 문은 우리 조부
한테 뿐이었다 조부가 이 책을 저 책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 끼게 가르
치시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조부를 같이 경복했다.

나의 아이지는 아이 때 사랑이 가라라 하면 한사코 말을 듣지 않고 나를
학고이 보내 갈라라 리를 썼다 한다. 그렇시니 출이 학고가 없고 화형
이나 종살이로 학고가 있기는 했으나 돈이 없어서 외아들은 학고이 못 볼
보냈다. 하느수없이 짐에서 자승했다 한다. 학고이가 볼 책이 없는
문이고 누리의 손을 열지 않고 글을 쓰고 보고 지어 냈을 가르치기까지 했다

한편은 할아버지가 나를 앞이 세우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보이는
저 마당이 무슨 마당한 네가 아느냐? 오늘 우리 저 마당 결이 가분라
자미만 이야기 가 있다" 하시면서 내 팔을 이끌고 마당을 찾아 갔다
이 마당에 깎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봉산동에서 잘 보이는, 그 늪이 거이 30 미척이 갈라는 마당이 솟아
있다 봉산동 사람들이 이 마당을 "선돌막이"라 부르다 종살이 큰 사람
치고 "선돌막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마당은 한 때는 성공이 깎아
지른 듯 한 네로 만났한 마당 세개가 쌓여 있다 그런데 ~~꼭~~
마당 ^이 ~~두~~ 사람의 큰 뿔죽 말자죽 흔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마당
에서 심여 리 하랑 되는 곳에 이와 똑같은 마당이 여럿 솟아 있다 이
마당이 사람의 뿔죽 말자죽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말견
하리 라는 말이 옛날 어느 관 장수가 이 마당에서 저 마당을 띄어 냈는
말자죽이라 말한라 또 이 마당 밑 큰 돌판이 장기관이 드러나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장수들이 들린 장기관이라 하고 한다.

그래로는 이 "선돌막이"를 보고 실라 그럴씩 마라 봉산동이 그림다

사람이 제 혀를 두 곳만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한편은 아버지가 .. 우리 지금까지 근근이 살고 있다 이제 리는
이런게 살수 없다 외롭든이 우리 땅을 잊었고 있다 여건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여다가서 무슨 일은 해야 하겠다" 하시고 짐은 내려보내다 그후
갈 만이 돌아 보았다 그 동안에 중국, 황제 러시아를 건너 오셨다. 한달
이후, ~~얼마후~~ 짐과 얼마 안되는 기간 짐들은 타고 랑잠 리날 차이를
한다. 이 소문을 듣고 나더 아버지가 처와 아이들을 리라 찾아 왔다
.. "형님이 리나가 가면 우리는 여기 치누구를 빌고 산관 밭임까지" 하면서
황 황 들 다 우리도 같이 올었다. 이것은 그 때 사회가 맞으면 이리이다
이 주.

1916 년 봄에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정든 고향을 리나 황제
러시아로 이사하셨다 그러나 여기로 산실고 늘실은 하항이라 쓸쓸하
랭정하 다 누구 하나 눈도 거들러 보지 않는다 그래도 아버지가 삶을
찾아서 추풍 사사를 라 돌아 보았다. 그러나 허수고 물이 정착할 곳이
없었다 그 당시에 추풍 사사에 원호(황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함들을
말함)인들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다 ~~작은~~ ^{작고 가난한} 사함들이었다 자기들은
랑만이오 이리만들은 산동들이라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 다니시다가 나중에 아주 중역한
중심 여항이라 는 마을로 찾아 왔다. 이 마을에는 원호인도 없고 대개 구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거기 30호나 되는 슬편한 고려촌이라 하하 말
하 깃지만 이 마을이 장차 독립군 ~~본부~~ ^{거처}로 됐다

이 마을에 남씨 한 호가 살고 있었다 그래도 통성이라 해서 우리에게
사랑 땅을 빌려주었다 하긴 이 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리 쫓겨 보라. 이 짐은
소, 말, 돼지를 가져다 있었다 그 때 이만하면 편함게 사든 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편이 두끼를 먹고 나가서 산 밑에서 있는
참나무 두棵로 댤 나무로 잘나 왔다. 알고 보니 이 짐 주인 할러가 짐이
무슨 사고가 생기게 되면 많은 짐고 한은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이 참나무에
처성을 들이곤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무를 잘나 본 마로 그날 밤에
마주간에서 말들이 서로 뛰고 화라 하면서 야간 멍석 됐다 극인 할러가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밧는 나무를 잘나와서 밧는이 서로 싸
라라 면서 우리를 랑잠여 짐에서 나가라 라라 하는수 없이 이
집에서 쫓겨났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으로 마침 이혼 개울 곁에
 어느 때 창고로 쓰다가 내어린 언짐 하나가 있었라 아머지가 이음권을
 대수 수리하러 식솔들을 여기로 옮겼라 이 짐이 나중에 독립군들의 함과
 무르 났다 이에 대해서 알브르 폰 러 자세히 말하겟다

1918년 가을에 ^{황궁에서} 오창환이 식솔들을 데리고 중심향으로 왔라
 이분이 이혼이 와서 굉장 자기 짐에 예수교회를 열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호오일예 예수 믿으려 이 짐을 찾았다 처음 교회가
 크게 났라. 아머지도 곧 식솔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조부는
 한사코 이관대라고 교회를 안다녔다

죽로 오창환이 기도 했는데 그줄거리는 이렇다

" 나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함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서 모이게 하시고 지난주 저희들이
 입한 죄를 회개할 기회를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 감사 하옵나...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라를 ~~내~~ 내어얏기고 돈갖 열성과
 보복과 천대를 받는 이 인간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찾게 해 주시옵
 소서 - - - - - 아멘 "

레이애가 끝나게 되면 아버지와 오창환이 모인 사람들은 앞에서
 국내외 정세와 특히는 조선 독립에 관 한해 주의를 환기시키었다.
 오창환 짐이 위형은 교회나 내용은 선전 실이었다. 교회가 ^{오래} 오래
 났다. 두썬이스크 세이 고려사범학교가 열리자 오창환이 거기
 가서 고려문헌을 가르치었다. 그러다가 1920년에 체포 났라
 하긴 오창환 선생 ^말 아니라 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러
 라 춘천, 채동선, 정홍식 이다 접거 났라 오창환의 말아들
 오 1명세가 사범학교를 졸업하러 온학기 회의를 가지러 한창
 말뼌하러 22살 때 체포 났다 은은 나니 오 1명세가 악형고문을
 못 이기어 옥실에서 죽으라 한다 오 1명세의 어머니는 고민 하러 죽이
 자살 났다 2이 만로 오창환 가정의 ^{한 사람이} 연족 할라 악형들은 쓰러진
 시대 때 이와 같이 연족 할 가정이 가수 무지개.

하도 의심고 려기런 일이라 비극은 쓰자고 하나 2일이 새삼스 ^레 려림제
 머리에 려오른라 잠간 말라갈라

이전 황제 러시아어 악치르 (세관에서 일하는 자를 말함)가
 고려사람들의 활약을 자로 찾아 왔다 흠사람들의 마음이 뚝뚝치

복 내서 그저 악취라곤 불렀다 악취가 풍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
들이 제각기 땀은 감출라 후회 처녀들이 러우셔워했다 그걸도 그럴
것이 "악취"는 보기 무섭게 생겼다 대개 키가 크고 몸이 쫘^우라고 검은
제 목이 큰도를 차고 긴 채찍을 들었다 머리는 뭉뚱하게 려글 만한
절 체양이 같은 노자는 건방지게 섰다 어느때나 술에 얼얼히 취해서
말무이서 랑장 걸터 걸걸 갈았다 마을에 모기 되면 노선사람들을 깔
보고 안말로 다짜 고짜로 술을 내라는 것이다 술이 없다면 하면 채찍으로
사정 없이 갈기고 권도를 세어 들고 피하는 곡식을 노조러 함을 치질라
한다 그러게 되면 누가 내로 감안을 가져온다, 랑을 가져온다 술은 가져
온다 야만이라 되술노 잘 알는다 이걸 황제 러시아 제노하에서 고려
사람들이 살아 온 사소한 실례의 하나라

우리는 그때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까라기예이츠 근처에 온 아이들과
자주 싸움도 했다. 러시아 아이들은 우리보다 후비르(좁쌀이탈밭)라고
하면 우리는 "호르나 블레브"(거정비안)이라 대꾸한다 피르 두들려
대는 일도 있었다 아이래는 ^후락 소락 내서 이런일이 있을수 있다
심안들이 아이들 랑후에 간섭한일이 없다 러시아 사람들이 생품이
우리는 인내성 있는 민족이라 해이 전강할것이지 고려들과 러시아
들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서로를 려이 려인 싸움한일이 없었다 이고적
화목하게 지냈다

~~이것이 될년지 놀라고 이런 것은 화르살라.
조부가 낚시질을 즐겨 하셨다. 주로 흰뚝시로 산천어를 잡는다 한번은
조부가 나보고, 율일인지 산천어가 노랑 대가리(러시아 사람은 뽕함)
현이 잘 낚는다고 짐의 현은 조구했어 "년 줄 갠다 하신다" 나는 조부의
이 낚시기를 듣고 노랑 현을 얻기로 했가 하려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러시아 촌으로 갔다 술숙이 뭉을 감추고 러시아 아이들 기갈렸라 짐
있노라니 아이 하나가 나온다. 눈 깜짝 사이이 그 아이를 못잡고 가다가
러리 현을 잘 낚다 아이가 울기 시작한다 대마 랑이 짐이 락어왔라
조부에게 그 머리 현을 드리었다. 그랬더니 그 현을 가져고 현 낚시를 쫓는다
그후 조부가 이 현 낚시를 가져고 산천어를 씀끼 많이 잡았다 내가 하도
이상 해서 노랑 대가리 현이 산천어가 잘 낚는 까라 조부와 물어
조부가 "나도 그 낚시를 본들라 야만 그 노랑 현이서 고기가 좋아하들
냈새가 나는 조양이라 리셨다 내가 그후 낚시질과 이 낚시를 물어~~

보았으나 아는 사람은 없었으나 나로써는 '문'이라야 내 생각 끝에서는
빛갈 때를 인 것 같다

그런데도 고려군이 서각하여 있는 훈이 드물었다 중심 항에는 서각함이
없었다 그래서 나의 무척이 이훈으로 오자 골짜기 끝에 학교를 설립할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주민총회를 열고 이훈이 학교를 세울때는
총회이 제다였다 이문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긴 회의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저문(이세자를 말함)이 학교가 무엇인지 알거나
하면서 저러는가. 학교집이 없지, 교원이 없지, 교과서가 없지 책상이
없지 '백가지에 한가지도 없는 형편'인 곳에서 어떻게 학교를 세울라는
말인가" 라고 조롱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누구도 말도 듣지 않고 시작한 일을 그냥 계속했다
이동리에 있는 8간집 한 채를 사가라 수리에 착수했다 목수들이
나무를 자를을 깎고 널미알리 른 걸는다, 잔판을 놓는다, 책상은 편각,
매질꾼들이 역은아른다, 도역한다 우악화 있는 사람들은 원뿔뿔선이
문다 학교길은 깎는다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래를 깔는다 운동장이
소매를 걸고 나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만 앞으면 무슨
일은 못 하겠는가! 한달이 못 돼서 훈이 학교가 일떠섰다 학교
전편이 "우리학교"라고 끄기 쓴 현판이 걸리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다기어서 놀랐다.

9월 초에 학교수가 열렸다 아이들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오
문다. 첫 삼학시간이 애국가로 시작된다 1. 2. 3 학년은 일요일에
나는 일학년이 관여했다. 선생들은 모두 내리(조현서) 이외 온 들들이라
그 때 있는 과목은 ~~그 때로 현저할라~~ 산술, 국어, 고려지리, 관공, 습자
도화, 일어, 제도 시간들이라 조현서가 저 온 교과서를 가져온 꿈꾸었다.
중심여항이 학교가 열렸다 는 소문이 자자하다 야래거, 왕겨우
남북심여항. 솔말관 기라 막을 듣기서 아이들이 중심여항 학교로
공무하려 왔다. 중동철로 세면 때 영웅이 된 김 유정도 ~~우리 학교에서~~
~~공무하려~~ 최종학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오기란 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다.

우리는 2 량이이 년년이 돌아오는 3.1절 기념도 굉장히 정축했다
학생들이 해국기를 만들고, 리관득립반세! 라고 쓴 구호판을 만들고
연관도 만들었다

기념날 학교 운동장이 작은사람들이라 모인라 학생들이 해극기를
 들이 들고 군중 앞이 서서 대한 독립 만세! 하고 부이 외친라 그렇게
 되던 군중도 다라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른라 시간이 되면 리영호
 선생이 연단이 온라 눈물 섞인 열연을 ~~한~~ 한다

“ 동포 여러분! 지금이 시각에도 외침들이 우리 근속 강산을 깃 잡고
 앓습니다 우리들 이것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라 --- ^{하루가} ^{3.1} ^일 ^이 ^후 ^이 ^후
 우리 땅에서 목아 뱀사라 이 위엄을 위해 굳게 붙잡사라 ^이 ^후 ^이 ^후
 우리 겨레들이 흔들리는 아찍로 석지 앓습니라 다 같이 일어나 적과
 싸우사라 --- 우리 힘은 죽지 앓습니라 대한 독립 만세!

군중이 호응한다

기념식이 끝나게 되던 학생들이 해극기를 내 흔들면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한다. 학생들 시어는 한 때 만중군이 권총시역
 연습은 하던 회차 백거리의 마에 앞에 와서 끝날라 학생들이 2차를
 마치고 마에 앞에 와서 죽도를 든다

우리가 아이러 회차 백거리를 지나 가게 되던 만중이 2마에 앞이
 가서 머리를 숙이곤 하던 일이 지금도 새롭다

회차 백거리는 불과 50호에 넘지 않을 작은 마을이라 그러나
 1908년 하록인 정거장이서 2등만들은 출살한 만중군이 와 있었라
 회차 백거리가 이록 작기는 하지만 력사에 오를수 있는 마을 이라
 생각 된다. 지금 치라 시에 가사는 흥성남, 기르기리아 수도 프를제
 시에서 사는 정 선길 이 이촌에서 살았라 의사관 든든 나마 동년애라.

내가 한국기과와 회차 백거리의 력한 이야기를 했더니 들으니 첫 소리
 라고 하면서 큰 관심은 돌나 앓라 그러나 이 래까지 아무 소식도 앓라
 모든 일이 래가 앓는 명이라 래를 놓치면 그만이다.

1922 4월 29 일에 일본군 한 력단이, 독립군들이 5.1절은 준비
 하느라 하고 한 황 마에 보내는 흥을 해서 손말관은 습격했다 40시간이나
 포격을 가했다 40호나 되는 손말관이 폭탄 재두지가 앓다 그 결과
 중대한 물건들과 인채기가 다 하여 앓다 이 래 독립군 무대들이
 지 망 행군이 나가 앓 앓고 흥성환 무대만 남아 앓 앓라 적군이 너무나
 수 세 래서 맞서 싸우지 앓고 후퇴는 앓다.

이후 독립군 함정 무를 중심 여참으로 무렵라 중심 여참은 독립군
 들이 미고적 안습라곤 살수 앓는 곳이라 좌우에 들은 산들이 앓고 그

그 계곡은 따라 서남쪽으로 한참가게 되면 북심향, 남심여향이라든
 작두마을들이 있고 좀더가게 되면 중쪽으로 이어진 골산맥들이 일라
 중심여향은 솔밭과 사기전이기도 독립전들이 지무였다. 암석이 우리
 짐이 리중짐, 리영호, 황영호, 최복동, 최한석, ~~최한석~~, 조상열
 리용, 리승환, 오기영 가라 유능한 인사들이 와있었다 우리 짐한
 구획에 총, 한환 그밖이 명가들로 ~~짜~~ 짜있었다. 이른 때로 밤
 내서 우리 짐이 몇기고나 다름없었다.

이리 년 처음 어느날 아버지가 갈구지른 준비라든 거기라 때리시게두
 딸이, 광구리 몇개를 샀다 그리고 나를 갈구지에 앉으라 한다 나는
 무슨 영문이지 모르고 올라간다 어머니 아버지 보라고 "어디로 갈
 차이를 하오" 한다. 아버지가 아주 내연하게 "어디쯤 갖 라올리
 있소" 라든 내 랑한다 짐을 떠났다 갈구지가 갈년라 아이래라 떡
 기이릿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다 여의 시간후이
 우리 갈구지가 소왕령(당시에 고려사참은 우수리이서를 아담게 불렀다)
 에 틀어있다 나는 이사가 처음이라 그런게 이상라게도 흥내고 칼한 위는
 든이 싸대라 아버지가 어찌자고 위는 소굴로 오현은가 좀 짐이안라
 이리 켜싸 켜싸 까거리이 고려사참이 정영하는 자그만한 려관이
 있었다 아버지가 이 려관으로 들어가신다. 려관 극입이 그전 무너
 아버지를 환환스레 아는 모양이라 아주 반감게 맞이한다 극입이
 내 손을 잡고 친절리 락한다. 아버지가 이 려관에서 사흘죽고 아흔
 일죽어 떠날 준비를 한다 ~~갈구지~~ 남블라는듯이 갈구리 뒤에 되지
 하나, 울릉도, 샷자리를 살고 북판이 나를 앉힌다 갈구지가 떠날라
 시외로 나온 때까지 전드리는음이 없었다 무사리 짐이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이 우러는 기라리고 있었다 친구들이 큰 수고를
 했소 하련서 아버지와 부수한다. 짐을 여두 해서 부리한다 알고 보니
 갈구리 밑이 총, 한환을 살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짐으로 날라르던라
 위는든의 눈은속이기다어 아버지가 나를 리리고 갈년것은 나는 알았다
 이후 어머니가 나를 리리고 갈년라 아버지에게 ^{내가 나를 리리라고} 리리 살이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는척 하는척한다 그후에도 ~~부모~~ 아버지 ~~가~~ ^가
 수차 소왕령을 관녀왔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혁명이
 생명을 아친 사람이 아니고되는 이런 대간부살한 일은 도저히 할수
 없다

1922년 6월 12일 화요일 아침이 소박 아가 버러라가 개이고 하늘이
 푸른 한장 없는 맑은 날씨가 2어는 때나 파란가지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은
 끝나고 떠들썩하리 운동장에서 노는데 난데없는 콩볶듯 흥소리가 요란
 하게 난다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놀라서 개들 숲속이 제각기 몸을 감추
 었다 한참 있노라니 흥소리가 그칠라 그레도 아이들이 숲속에서 나오지 않았고
 운동장이 잠잠라 라는 전뎡의 주뎡을 듣고서야 학생들이 숲속에서 나와
 운동장에 보였라 알고보니, 현성관 근처가 지방행 군에서 돌아와 중심여창
 에서 쉬고 있었라 이걸보른 맑은 외견 한 소목대가 바차이 황거우(크로움가)
 호호들을 앞세우고 중심창이 달려들었다 외견이 유리한 꼬지를 찾이 하고
 마음에 끌리웠라 그러자 맞출질이 시작됐라 외음 제격수 한놈이 중심여창이
 잘 나터다 보이는 자리를 찾아하고 우리군인들은 쏘았다 이것은 말전한
 현성관 제격수 한사람이 포대(홍이적은 막기 타해 들로 들터 막은 호소들받힌)
 에 올라 외음 제격수의 이마를 바로 쏘았다 그러자 놈은 망아외도 미쳐
 못 달기고 주사르렀라 이것을 본 외음들은 짐을 뒤집어 먹고 자기군인사체도
 못 걸고 무상 광한 흥역도 내리러리 1명소니 했라 이날은 주연, 문정우,
 김해선 세사람이 사망하리 외견 제명이 죽었다

아군은, 그날로 남심여창으로 이동했라 중심여창 주민들도 포인들만
 남겨 두리 라 퇴선했라

그이튿날 외견 레우개가 중심창을 포위하리 장교 몇몇 놈만 빠져로
 들어왔다 그러자 포인들이 장교들을 쏘아했라 죽이 끌리르고 흥, 칼로
 사람들은 사정없이 죽이리 외음 장교놈들이 포인들끼리 아무 수일 때도
 가하지 않고 자기를 사체만 걸어가지고 공손리 가머렸다 아나 외음들이
 이리양에 와서 붉은 불이 큰 모양이라 사람들이 깔렸라

이사면이 있던 이후 중심창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았다, 이어지리
 이후 최성률이라는 사람의 조작음으로 생계를 유지했라

2. 생활의 전이.

1922년 시일이 일분이 원동에서 철영했라 그러자 원동 전 지역이
 소이르화 됐라 이리지가 이레 북에 제외거우로 이사했라

제외거우는 1880년 경에 개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척 초기에 리공원,
 리공원, 김함우사 기타 사람들이 살았다 리공원이 이촌이 있는 1어245가
 차라서 사람들이 "리공원1양촌"이라 불렀라 리공원은 나의 9

장인이라 될력 있고 의지가 강함은 아닐라 나는 장인을 못 보았라
식^{10년}의 오래 알라가 살가방이 없라 큰 짐으로 자살할라
한다

재피거우는 물남, 물북, 강내박초 (강내박고목 한대가 서있 라그희서
강내^{10년} 초이라 물갈라) 으로나누어 저있라 우리도 물남에서 살았라
이후에서 살래 우리가 겪은 몇가지를 말라겠다.

혹흥사사에서 첫 쇼메르가 재피거우 기 설립 됐라 아이러자가 첫 쇼메르
의 특출함으로 신출했라 그때부터 아버지가 전문적으로 사회사업에
나설라 출질서가 마르잡히기 시작했라 머슴꾼 제도가 점차적으로 폐지
되고 특전과 ^배협잡으로 살아오던 건달들이 차차 없어졌라 민중들이
쇼메르를 지지 찬동했라 그러나 라 그런것은 아니라 일부 무학자들은 쇼메르
를 은근히 미워했라 선제도가 끝나서 일부 무학들이 외국으로 도망했라

그 당시의 파동시기나 흑수시기에 시쇼메르나 사당에서 동출으로 지도원을
파견하곤 했라 한 번을 파동시기에 사랑에서 우리출으로 남흥선을 지도
원으로 보냈라 그분이 우리집에 와있느면서 ^{2년}정도 수업을 했라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때만해서 까를 사암 20여명이 동등이 들고 우리집 마당에
들어 왔다. 그들 한사람이 "시에서 돈지도원을 끝내줄라 우리 그놈을 ^{2년}라워
죽이겠다"라 외친다. 아버지가 곁에서 이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다가서서 "이것이 여짜외던 일이오"라니 몇 한사람이 말하기를 "시에서
돈 놈을 해쳐죽이겠다"라 한다" 그때서 아버지가 "당신들 소원이 참
그렇라면 나쁜 해쳐 죽여시오, 그사람은 사랑에서 온 분이오. 우리를 도우
려온 동무요.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대담할 사람이 있으면 알이 나서
서오"라니 대답이 없라 한참 서로 논치만 불라가 하나 들씩 흐너지고
말았다. 이후 아버지가 이것이 누구의 작간인줄 잘 알면서도 그저 내
머리두만 ^{2년}이런일이 라시는 없었라 온 마을 사랑들이 쇼메르를 밀고
거리만 들었라 안 알던 일이 없었라

~~재피거우 물남에서 있던 사건을 회상하려 한다.~~

아이들이 저녁은 먹고 학교출 (학교가 안라해서 학교출이라 물갈라)
으로 돌려 간다는 것이 상습으로 됐라 거기 가서 유희도 하고 여그런 때는
영화도 구경한다. 어느날 저녁에 여느때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
출으로 왔라 그날 저녁에 까원 학교에서 활동사진 (그시절에 영화를 활동사진
이라고 했라)을 들렸라 지금에 이르러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흑색목성

캄캄한 밤이 나를 못 볼 잠은 줄 알고 내 뒤를 따르지 않았다 슬슬이 숨어
있다가 흥이 뜨자 짐이 왔 다고 라신다

누름이 물잠 아간 사람등을 차례로 문초 했라 마지막으로 조무르
문초 했라 조무가 이누름이 내아름을 물잠자는것을 아신타 ^{2대시} ~~내카~~
^{"이런 나쁜 사람"} 내카소 메르 여원장의라고 하면 다른사람등을 놓아 주리라는 말을
알고 "내가 소메르 여원장의 무친이라 이사람등을 속이 내아름이
없다" 라신타. 문초하던누이 조무 보고 '앞에 썰사람이 랑신
아름이 아님가' 하고 슬스나 조무가 그럴가인 대 랑라 신타 그러니까
문초하던누이 "저런 고약한 사람 보았나 아버지를 두고 찍다니"
하면서 훌훌 랑다

일이 이말 기 되자 조무를 볼대로 남겨 두고 다른사람등을 라출한라
이사건 이후 몇을 만에 ¹ ~~1~~ ² ~~2~~ ³ ~~3~~ ⁴ ~~4~~ ⁵ ~~5~~ ⁶ ~~6~~ ⁷ ~~7~~ ⁸ ~~8~~ ⁹ ~~9~~ ¹⁰ ~~10~~ ¹¹ ~~11~~ ¹² ~~12~~ ¹³ ~~13~~ ¹⁴ ~~14~~ ¹⁵ ~~15~~ ¹⁶ ~~16~~ ¹⁷ ~~17~~ ¹⁸ ~~18~~ ¹⁹ ~~19~~ ²⁰ ~~20~~ ²¹ ~~21~~ ²² ~~22~~ ²³ ~~23~~ ²⁴ ~~24~~ ²⁵ ~~25~~ ²⁶ ~~26~~ ²⁷ ~~27~~ ²⁸ ~~28~~ ²⁹ ~~29~~ ³⁰ ~~30~~ ³¹ ~~31~~ ³² ~~32~~ ³³ ~~33~~ ³⁴ ~~34~~ ³⁵ ~~35~~ ³⁶ ~~36~~ ³⁷ ~~37~~ ³⁸ ~~38~~ ³⁹ ~~39~~ ⁴⁰ ~~40~~ ⁴¹ ~~41~~ ⁴² ~~42~~ ⁴³ ~~43~~ ⁴⁴ ~~44~~ ⁴⁵ ~~45~~ ⁴⁶ ~~46~~ ⁴⁷ ~~47~~ ⁴⁸ ~~48~~ ⁴⁹ ~~49~~ ⁵⁰ ~~50~~ ⁵¹ ~~51~~ ⁵² ~~52~~ ⁵³ ~~53~~ ⁵⁴ ~~54~~ ⁵⁵ ~~55~~ ⁵⁶ ~~56~~ ⁵⁷ ~~57~~ ⁵⁸ ~~58~~ ⁵⁹ ~~59~~ ⁶⁰ ~~60~~ ⁶¹ ~~61~~ ⁶² ~~62~~ ⁶³ ~~63~~ ⁶⁴ ~~64~~ ⁶⁵ ~~65~~ ⁶⁶ ~~66~~ ⁶⁷ ~~67~~ ⁶⁸ ~~68~~ ⁶⁹ ~~69~~ ⁷⁰ ~~70~~ ⁷¹ ~~71~~ ⁷² ~~72~~ ⁷³ ~~73~~ ⁷⁴ ~~74~~ ⁷⁵ ~~75~~ ⁷⁶ ~~76~~ ⁷⁷ ~~77~~ ⁷⁸ ~~78~~ ⁷⁹ ~~79~~ ⁸⁰ ~~80~~ ⁸¹ ~~81~~ ⁸² ~~82~~ ⁸³ ~~83~~ ⁸⁴ ~~84~~ ⁸⁵ ~~85~~ ⁸⁶ ~~86~~ ⁸⁷ ~~87~~ ⁸⁸ ~~88~~ ⁸⁹ ~~89~~ ⁹⁰ ~~90~~ ⁹¹ ~~91~~ ⁹² ~~92~~ ⁹³ ~~93~~ ⁹⁴ ~~94~~ ⁹⁵ ~~95~~ ⁹⁶ ~~96~~ ⁹⁷ ~~97~~ ⁹⁸ ~~98~~ ⁹⁹ ~~99~~ ¹⁰⁰ ~~100~~ ¹⁰¹ ~~101~~ ¹⁰² ~~102~~ ¹⁰³ ~~103~~ ¹⁰⁴ ~~104~~ ¹⁰⁵ ~~105~~ ¹⁰⁶ ~~106~~ ¹⁰⁷ ~~107~~ ¹⁰⁸ ~~108~~ ¹⁰⁹ ~~109~~ ¹¹⁰ ~~110~~ ¹¹¹ ~~111~~ ¹¹² ~~112~~ ¹¹³ ~~113~~ ¹¹⁴ ~~114~~ ¹¹⁵ ~~115~~ ¹¹⁶ ~~116~~ ¹¹⁷ ~~117~~ ¹¹⁸ ~~118~~ ¹¹⁹ ~~119~~ ¹²⁰ ~~120~~ ¹²¹ ~~121~~ ¹²² ~~122~~ ¹²³ ~~123~~ ¹²⁴ ~~124~~ ¹²⁵ ~~125~~ ¹²⁶ ~~126~~ ¹²⁷ ~~127~~ ¹²⁸ ~~128~~ ¹²⁹ ~~129~~ ¹³⁰ ~~130~~ ¹³¹ ~~131~~ ¹³² ~~132~~ ¹³³ ~~133~~ ¹³⁴ ~~134~~ ¹³⁵ ~~135~~ ¹³⁶ ~~136~~ ¹³⁷ ~~137~~ ¹³⁸ ~~138~~ ¹³⁹ ~~139~~ ¹⁴⁰ ~~140~~ ¹⁴¹ ~~141~~ ¹⁴² ~~142~~ ¹⁴³ ~~143~~ ¹⁴⁴ ~~144~~ ¹⁴⁵ ~~145~~ ¹⁴⁶ ~~146~~ ¹⁴⁷ ~~147~~ ¹⁴⁸ ~~148~~ ¹⁴⁹ ~~149~~ ¹⁵⁰ ~~150~~ ¹⁵¹ ~~151~~ ¹⁵² ~~152~~ ¹⁵³ ~~153~~ ¹⁵⁴ ~~154~~ ¹⁵⁵ ~~155~~ ¹⁵⁶ ~~156~~ ¹⁵⁷ ~~157~~ ¹⁵⁸ ~~158~~ ¹⁵⁹ ~~159~~ ¹⁶⁰ ~~160~~ ¹⁶¹ ~~161~~ ¹⁶² ~~162~~ ¹⁶³ ~~163~~ ¹⁶⁴ ~~164~~ ¹⁶⁵ ~~165~~ ¹⁶⁶ ~~166~~ ¹⁶⁷ ~~167~~ ¹⁶⁸ ~~168~~ ¹⁶⁹ ~~169~~ ¹⁷⁰ ~~170~~ ¹⁷¹ ~~171~~ ¹⁷² ~~172~~ ¹⁷³ ~~173~~ ¹⁷⁴ ~~174~~ ¹⁷⁵ ~~175~~ ¹⁷⁶ ~~176~~ ¹⁷⁷ ~~177~~ ¹⁷⁸ ~~178~~ ¹⁷⁹ ~~179~~ ¹⁸⁰ ~~180~~ ¹⁸¹ ~~181~~ ¹⁸² ~~182~~ ¹⁸³ ~~183~~ ¹⁸⁴ ~~184~~ ¹⁸⁵ ~~185~~ ¹⁸⁶ ~~186~~ ¹⁸⁷ ~~187~~ ¹⁸⁸ ~~188~~ ¹⁸⁹ ~~189~~ ¹⁹⁰ ~~190~~ ¹⁹¹ ~~191~~ ¹⁹² ~~192~~ ¹⁹³ ~~193~~ ¹⁹⁴ ~~194~~ ¹⁹⁵ ~~195~~ ¹⁹⁶ ~~196~~ ¹⁹⁷ ~~197~~ ¹⁹⁸ ~~198~~ ¹⁹⁹ ~~199~~ ²⁰⁰ ~~200~~ ²⁰¹ ~~201~~ ²⁰² ~~202~~ ²⁰³ ~~203~~ ²⁰⁴ ~~204~~ ²⁰⁵ ~~205~~ ²⁰⁶ ~~206~~ ²⁰⁷ ~~207~~ ²⁰⁸ ~~208~~ ²⁰⁹ ~~209~~ ²¹⁰ ~~210~~ ²¹¹ ~~211~~ ²¹² ~~212~~ ²¹³ ~~213~~ ²¹⁴ ~~214~~ ²¹⁵ ~~215~~ ²¹⁶ ~~216~~ ²¹⁷ ~~217~~ ²¹⁸ ~~218~~ ²¹⁹ ~~219~~ ²²⁰ ~~220~~ ²²¹ ~~221~~ ²²² ~~222~~ ²²³ ~~223~~ ²²⁴ ~~224~~ ²²⁵ ~~225~~ ²²⁶ ~~226~~ ²²⁷ ~~227~~ ²²⁸ ~~228~~ ²²⁹ ~~229~~ ²³⁰ ~~230~~ ²³¹ ~~231~~ ²³² ~~232~~ ²³³ ~~233~~ ²³⁴ ~~234~~ ²³⁵ ~~235~~ ²³⁶ ~~236~~ ²³⁷ ~~237~~ ²³⁸ ~~238~~ ²³⁹ ~~239~~ ²⁴⁰ ~~240~~ ²⁴¹ ~~241~~ ²⁴² ~~242~~ ²⁴³ ~~243~~ ²⁴⁴ ~~244~~ ²⁴⁵ ~~245~~ ²⁴⁶ ~~246~~ ²⁴⁷ ~~247~~ ²⁴⁸ ~~248~~ ²⁴⁹ ~~249~~ ²⁵⁰ ~~250~~ ²⁵¹ ~~251~~ ²⁵² ~~252~~ ²⁵³ ~~253~~ ²⁵⁴ ~~254~~ ²⁵⁵ ~~255~~ ²⁵⁶ ~~256~~ ²⁵⁷ ~~257~~ ²⁵⁸ ~~258~~ ²⁵⁹ ~~259~~ ²⁶⁰ ~~260~~ ²⁶¹ ~~261~~ ²⁶² ~~262~~ ²⁶³ ~~263~~ ²⁶⁴ ~~264~~ ²⁶⁵ ~~265~~ ²⁶⁶ ~~266~~ ²⁶⁷ ~~267~~ ²⁶⁸ ~~268~~ ²⁶⁹ ~~269~~ ²⁷⁰ ~~270~~ ²⁷¹ ~~271~~ ²⁷² ~~272~~ ²⁷³ ~~273~~ ²⁷⁴ ~~274~~ ²⁷⁵ ~~275~~ ²⁷⁶ ~~276~~ ²⁷⁷ ~~277~~ ²⁷⁸ ~~278~~ ²⁷⁹ ~~279~~ ²⁸⁰ ~~280~~ ²⁸¹ ~~281~~ ²⁸² ~~282~~ ²⁸³ ~~283~~ ²⁸⁴ ~~284~~ ²⁸⁵ ~~285~~ ²⁸⁶ ~~286~~ ²⁸⁷ ~~287~~ ²⁸⁸ ~~288~~ ²⁸⁹ ~~289~~ ²⁹⁰ ~~290~~ ²⁹¹ ~~291~~ ²⁹² ~~292~~ ²⁹³ ~~293~~ ²⁹⁴ ~~294~~ ²⁹⁵ ~~295~~ ²⁹⁶ ~~296~~ ²⁹⁷ ~~297~~ ²⁹⁸ ~~298~~ ²⁹⁹ ~~299~~ ³⁰⁰ ~~300~~ ³⁰¹ ~~301~~ ³⁰² ~~302~~ ³⁰³ ~~303~~ ³⁰⁴ ~~304~~ ³⁰⁵ ~~305~~ ³⁰⁶ ~~306~~ ³⁰⁷ ~~307~~ ³⁰⁸ ~~308~~ ³⁰⁹ ~~309~~ ³¹⁰ ~~310~~ ³¹¹ ~~311~~ ³¹² ~~312~~ ³¹³ ~~313~~ ³¹⁴ ~~314~~ ³¹⁵ ~~315~~ ³¹⁶ ~~316~~ ³¹⁷ ~~317~~ ³¹⁸ ~~318~~ ³¹⁹ ~~319~~ ³²⁰ ~~320~~ ³²¹ ~~321~~ ³²² ~~322~~ ³²³ ~~323~~ ³²⁴ ~~324~~ ³²⁵ ~~325~~ ³²⁶ ~~326~~ ³²⁷ ~~327~~ ³²⁸ ~~328~~ ³²⁹ ~~329~~ ³³⁰ ~~330~~ ³³¹ ~~331~~ ³³² ~~332~~ ³³³ ~~333~~ ³³⁴ ~~334~~ ³³⁵ ~~335~~ ³³⁶ ~~336~~ ³³⁷ ~~337~~ ³³⁸ ~~338~~ ³³⁹ ~~339~~ ³⁴⁰ ~~340~~ ³⁴¹ ~~341~~ ³⁴² ~~342~~ ³⁴³ ~~343~~ ³⁴⁴ ~~344~~ ³⁴⁵ ~~345~~ ³⁴⁶ ~~346~~ ³⁴⁷ ~~347~~ ³⁴⁸ ~~348~~ ³⁴⁹ ~~349~~ ³⁵⁰ ~~350~~ ³⁵¹ ~~351~~ ³⁵² ~~352~~ ³⁵³ ~~353~~ ³⁵⁴ ~~354~~ ³⁵⁵ ~~355~~ ³⁵⁶ ~~356~~ ³⁵⁷ ~~357~~ ³⁵⁸ ~~358~~ ³⁵⁹ ~~359~~ ³⁶⁰ ~~360~~ ³⁶¹ ~~361~~ ³⁶² ~~362~~ ³⁶³ ~~363~~ ³⁶⁴ ~~364~~ ³⁶⁵ ~~365~~ ³⁶⁶ ~~366~~ ³⁶⁷ ~~367~~ ³⁶⁸ ~~368~~ ³⁶⁹ ~~369~~ ³⁷⁰ ~~370~~ ³⁷¹ ~~371~~ ³⁷² ~~372~~ ³⁷³ ~~373~~ ³⁷⁴ ~~374~~ ³⁷⁵ ~~375~~ ³⁷⁶ ~~376~~ ³⁷⁷ ~~377~~ ³⁷⁸ ~~378~~ ³⁷⁹ ~~379~~ ³⁸⁰ ~~380~~ ³⁸¹ ~~381~~ ³⁸² ~~382~~ ³⁸³ ~~383~~ ³⁸⁴ ~~384~~ ³⁸⁵ ~~385~~ ³⁸⁶ ~~386~~ ³⁸⁷ ~~387~~ ³⁸⁸ ~~388~~ ³⁸⁹ ~~389~~ ³⁹⁰ ~~390~~ ³⁹¹ ~~391~~ ³⁹² ~~392~~ ³⁹³ ~~393~~ ³⁹⁴ ~~394~~ ³⁹⁵ ~~395~~ ³⁹⁶ ~~396~~ ³⁹⁷ ~~397~~ ³⁹⁸ ~~398~~ ³⁹⁹ ~~399~~ ⁴⁰⁰ ~~400~~ ⁴⁰¹ ~~401~~ ⁴⁰² ~~402~~ ⁴⁰³ ~~403~~ ⁴⁰⁴ ~~404~~ ⁴⁰⁵ ~~405~~ ⁴⁰⁶ ~~406~~ ⁴⁰⁷ ~~407~~ ⁴⁰⁸ ~~408~~ ⁴⁰⁹ ~~409~~ ⁴¹⁰ ~~410~~ ⁴¹¹ ~~411~~ ⁴¹² ~~412~~ ⁴¹³ ~~413~~ ⁴¹⁴ ~~414~~ ⁴¹⁵ ~~415~~ ⁴¹⁶ ~~416~~ ⁴¹⁷ ~~417~~ ⁴¹⁸ ~~418~~ ⁴¹⁹ ~~419~~ ⁴²⁰ ~~420~~ ⁴²¹ ~~421~~ ⁴²² ~~422~~ ⁴²³ ~~423~~ ⁴²⁴ ~~424~~ ⁴²⁵ ~~425~~ ⁴²⁶ ~~426~~ ⁴²⁷ ~~427~~ ⁴²⁸ ~~428~~ ⁴²⁹ ~~429~~ ⁴³⁰ ~~430~~ ⁴³¹ ~~431~~ ⁴³² ~~432~~ ⁴³³ ~~433~~ ⁴³⁴ ~~434~~ ⁴³⁵ ~~435~~ ⁴³⁶ ~~436~~ ⁴³⁷ ~~437~~ ⁴³⁸ ~~438~~ ⁴³⁹ ~~439~~ ⁴⁴⁰ ~~440~~ ⁴⁴¹ ~~441~~ ⁴⁴² ~~442~~ ⁴⁴³ ~~443~~ ⁴⁴⁴ ~~444~~ ⁴⁴⁵ ~~445~~ ⁴⁴⁶ ~~446~~ ⁴⁴⁷ ~~447~~ ⁴⁴⁸ ~~448~~ ⁴⁴⁹ ~~449~~ ⁴⁵⁰ ~~450~~ ⁴⁵¹ ~~451~~ ⁴⁵² ~~452~~ ⁴⁵³ ~~453~~ ⁴⁵⁴ ~~454~~ ⁴⁵⁵ ~~455~~ ⁴⁵⁶ ~~456~~ ⁴⁵⁷ ~~457~~ ⁴⁵⁸ ~~458~~ ⁴⁵⁹ ~~459~~ ⁴⁶⁰ ~~460~~ ⁴⁶¹ ~~461~~ ⁴⁶² ~~462~~ ⁴⁶³ ~~463~~ ⁴⁶⁴ ~~464~~ ⁴⁶⁵ ~~465~~ ⁴⁶⁶ ~~466~~ ⁴⁶⁷ ~~467~~ ⁴⁶⁸ ~~468~~ ⁴⁶⁹ ~~469~~ ⁴⁷⁰ ~~470~~ ⁴⁷¹ ~~471~~ ⁴⁷² ~~472~~ ⁴⁷³ ~~473~~ ⁴⁷⁴ ~~474~~ ⁴⁷⁵ ~~475~~ ⁴⁷⁶ ~~476~~ ⁴⁷⁷ ~~477~~ ⁴⁷⁸ ~~478~~ ⁴⁷⁹ ~~479~~ ⁴⁸⁰ ~~480~~ ⁴⁸¹ ~~481~~ ⁴⁸² ~~482~~ ⁴⁸³ ~~483~~ ⁴⁸⁴ ~~484~~ ⁴⁸⁵ ~~485~~ ⁴⁸⁶ ~~486~~ ⁴⁸⁷ ~~487~~ ⁴⁸⁸ ~~488~~ ⁴⁸⁹ ~~489~~ ⁴⁹⁰ ~~490~~ ⁴⁹¹ ~~491~~ ⁴⁹² ~~492~~ ⁴⁹³ ~~493~~ ⁴⁹⁴ ~~494~~ ⁴⁹⁵ ~~495~~ ⁴⁹⁶ ~~496~~ ⁴⁹⁷ ~~497~~ ⁴⁹⁸ ~~498~~ ⁴⁹⁹ ~~499~~ ⁵⁰⁰ ~~500~~ ⁵⁰¹ ~~501~~ ⁵⁰² ~~502~~ ⁵⁰³ ~~503~~ ⁵⁰⁴ ~~504~~ ⁵⁰⁵ ~~505~~ ⁵⁰⁶ ~~506~~ ⁵⁰⁷ ~~507~~ ⁵⁰⁸ ~~508~~ ⁵⁰⁹ ~~509~~ ⁵¹⁰ ~~510~~ ⁵¹¹ ~~511~~ ⁵¹² ~~512~~ ⁵¹³ ~~513~~ ⁵¹⁴ ~~514~~ ⁵¹⁵ ~~515~~ ⁵¹⁶ ~~516~~ ⁵¹⁷ ~~517~~ ⁵¹⁸ ~~518~~ ⁵¹⁹ ~~519~~ ⁵²⁰ ~~520~~ ⁵²¹ ~~521~~ ⁵²² ~~522~~ ⁵²³ ~~523~~ ⁵²⁴ ~~524~~ ⁵²⁵ ~~525~~ ⁵²⁶ ~~526~~ ⁵²⁷ ~~527~~ ⁵²⁸ ~~528~~ ⁵²⁹ ~~529~~ ⁵³⁰ ~~530~~ ⁵³¹ ~~531~~ ⁵³² ~~532~~ ⁵³³ ~~533~~ ⁵³⁴ ~~534~~ ⁵³⁵ ~~535~~ ⁵³⁶ ~~536~~ ⁵³⁷ ~~537~~ ⁵³⁸ ~~538~~ ⁵³⁹ ~~539~~ ⁵⁴⁰ ~~540~~ ⁵⁴¹ ~~541~~ ⁵⁴² ~~542~~ ⁵⁴³ ~~543~~ ⁵⁴⁴ ~~544~~ ⁵⁴⁵ ~~545~~ ⁵⁴⁶ ~~546~~ ⁵⁴⁷ ~~547~~ ⁵⁴⁸ ~~548~~ ⁵⁴⁹ ~~549~~ ⁵⁵⁰ ~~550~~ ⁵⁵¹ ~~551~~ ⁵⁵² ~~552~~ ⁵⁵³ ~~553~~ ⁵⁵⁴ ~~554~~ ⁵⁵⁵ ~~555~~ ⁵⁵⁶ ~~556~~ ⁵⁵⁷ ~~557~~ ⁵⁵⁸ ~~558~~ ⁵⁵⁹ ~~559~~ ⁵⁶⁰ ~~560~~ ⁵⁶¹ ~~561~~ ⁵⁶² ~~562~~ ⁵⁶³ ~~563~~ ⁵⁶⁴ ~~564~~ ⁵⁶⁵ ~~565~~ ⁵⁶⁶ ~~566~~ ⁵⁶⁷ ~~567~~ ⁵⁶⁸ ~~568~~ ⁵⁶⁹ ~~569~~ ⁵⁷⁰ ~~570~~ ⁵⁷¹ ~~571~~ ⁵⁷² ~~572~~ ⁵⁷³ ~~573~~ ⁵⁷⁴ ~~574~~ ⁵⁷⁵ ~~575~~ ⁵⁷⁶ ~~576~~ ⁵⁷⁷ ~~577~~ ⁵⁷⁸ ~~578~~ ⁵⁷⁹ ~~579~~ ⁵⁸⁰ ~~580~~ ⁵⁸¹ ~~581~~ ⁵⁸² ~~582~~ ⁵⁸³ ~~583~~ ⁵⁸⁴ ~~584~~ ⁵⁸⁵ ~~585~~ ⁵⁸⁶ ~~586~~ ⁵⁸⁷ ~~587~~ ⁵⁸⁸ ~~588~~ ⁵⁸⁹ ~~589~~ ⁵⁹⁰ ~~590~~ ⁵⁹¹ ~~591~~ ⁵⁹² ~~592~~ ⁵⁹³ ~~593~~ ⁵⁹⁴ ~~594~~ ⁵⁹⁵ ~~595~~ ⁵⁹⁶ ~~596~~ ⁵⁹⁷ ~~597~~ ⁵⁹⁸ ~~598~~ ⁵⁹⁹ ~~599~~ ⁶⁰⁰ ~~600~~ ⁶⁰¹ ~~601~~ ⁶⁰² ~~602~~ ⁶⁰³ ~~603~~ ⁶⁰⁴ ~~604~~ ⁶⁰⁵ ~~605~~ ⁶⁰⁶ ~~606~~ ⁶⁰⁷ ~~607~~ ⁶⁰⁸ ~~608~~ ⁶⁰⁹ ~~609~~ ⁶¹⁰ ~~610~~ ⁶¹¹ ~~611~~ ⁶¹² ~~612~~ ⁶¹³ ~~613~~ ⁶¹⁴ ~~614~~ ⁶¹⁵ ~~615~~ ⁶¹⁶ ~~616~~ ⁶¹⁷ ~~617~~ ⁶¹⁸ ~~618~~ ⁶¹⁹ ~~619~~ ⁶²⁰ ~~620~~ ⁶²¹ ~~621~~ ⁶²² ~~622~~ ⁶²³ ~~623~~ ⁶²⁴ ~~624~~ ⁶²⁵ ~~625~~ ⁶²⁶ ~~626~~ ⁶²⁷ ~~627~~ ⁶²⁸ ~~628~~ ⁶²⁹ ~~629~~ ⁶³⁰ ~~630~~ ⁶³¹ ~~631~~ ⁶³² ~~632~~ ⁶³³ ~~633~~ ⁶³⁴ ~~634~~ ⁶³⁵ ~~635~~ ⁶³⁶ ~~636~~ ⁶³⁷ ~~637~~ ⁶³⁸ ~~638~~ ⁶³⁹ ~~639~~ ⁶⁴⁰ ~~640~~ ⁶⁴¹ ~~641~~ ⁶⁴² ~~642~~ ⁶⁴³ ~~643~~ ⁶⁴⁴ ~~644~~ ⁶⁴⁵ ~~645~~ ⁶⁴⁶ ~~646~~ ⁶⁴⁷ ~~647~~ ⁶⁴⁸ ~~648~~ ⁶⁴⁹ ~~649~~ ⁶⁵⁰ ~~650~~ ⁶⁵¹ ~~651~~ ⁶⁵² ~~652~~ ⁶⁵³ ~~653~~ ⁶⁵⁴ ~~654~~ ⁶⁵⁵ ~~655~~ ⁶⁵⁶ ~~656~~ ⁶⁵⁷ ~~657~~ ⁶⁵⁸ ~~658~~ ⁶⁵⁹ ~~659~~ ⁶⁶⁰ ~~660~~ ⁶⁶¹ ~~661~~ ⁶⁶² ~~662~~ ⁶⁶³ ~~663~~ ⁶⁶⁴ ~~664~~ ⁶⁶⁵ ~~665~~ ⁶⁶⁶ ~~666~~ ⁶⁶⁷ ~~667~~ ⁶⁶⁸ ~~668~~ ⁶⁶⁹ ~~669~~ ⁶⁷⁰ ~~670~~ ⁶⁷¹ ~~671~~ ⁶⁷² ~~672~~ ⁶⁷³ ~~673~~ ⁶⁷⁴ ~~674~~ ⁶⁷⁵ ~~675~~ ⁶⁷⁶ ~~676~~ ⁶⁷⁷ ~~677~~

착수했다 라 그런것은 아니었다 일부 무대들은 특정한채로 중독으로
가버렸다 여 2대 한 소무대가 무장을 맡이지 않고 남심여항이
군지지를 두고 먹고 살기근해아하겠은가 혼으로 돌아간 나면서 현이
먹은것은 사실이라 그러나 사람을 죽이거나 무리화노일은 없었다

이분도를 받은 뒤는 큰대분부가 기영 몇 명은 남심여항으로 보냈다
2대 남심여항이 허승환 큰대에서 북쪽하던 청년 30 명이 있었다
기영들이 여기가서 이사람들은 한줄로 앉혀 놓고 딱히 칼련등을
하듯이 깡그리 묶은 것 같아 버렸다 아나 기영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라 잘라 버리라는 북부의 명령을 알고 와서 이런 끔찍스러운 일을
저지린 것 같다 그러나 저러나 이것은 만행이라 칼리는 말할 수 없다

2대 재피겨우 공청인들이 남심여항이 가서 칼이 묶은 칼련 청년
들을 제장하러 왔다가는 그들끼서 여씨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큰말이
들었다 그러나 2대 전역에 참가한 사람들도 사방으로 나뉘고 2대
소년관련이였다 그래서 2대 전역이 죽 한가 했다

나는 2대 허승환을 남심여항으로 파견했다 이런 아련이 죽은 뒤
할수 일없고 되고 볼라. 2대 당시 이런 풍설도 있었다 즉 남심여항이
있던 젊은 사람들이 먼저 출전은 그러나 기영들이 격을 해서 그들의
죽은 1예인 것이라고 받은 편지였다. 이것은 혹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천가하기 위해 주면 될 말 ~~이와 남자 죽는~~ 들리었다.

우리는 불났에서 일곱 석구가 3간 호가짐이서 1예롭게 살았다 가분이
점스 화고든었다 2대 아버지가 노예는 더원장을 받으면서
19 죽을 리를 받았다 이것은 가자르 생계를 유지할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강나무출 (고목 강나무한 대가서 일라) 해서 혼자살은이
강나무출이라 부른다)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강나무출에서
여농사로 했다. 노예는 얻은 하면서 점스 이 여농사를 해 보사리
했다. 그러나 이출이 마침 8간 인침 한대가 있었다. 내어다가
이 짐을 들어 보고. 이밖은 사람보고 "이 짐이 왜 미어 있소 하
물으니 그 사람의 피침이 " 아화 문르시노 노야임리다. 이 짐에서
살던 하루 사람이 짐을 내어리고 갔수니라 이 짐에서 많이면
꼭 소리는라 사어물들이 절로 개래 할란나라" 하리 내감한다
아버지가 듣기 사람등을 보고 "내가 이 짐으로 이사하도라 강선들이
안래 낼소" 하니까 듣기 사람등말이 그것을 강선이 할 리서 외

그러나 공연한 생각을 그러하시오 이 짐이 험하게서 와드록 사오²란라
 아너지는 동리사람들의 말을 뜻은 철라 짐수타이 척수란라 짐을
 세운리 오래리 앓아서 열로수리 할기는 없었라 이 짐으로 이사²였다 절김
 사람들이 힘쓸수설라다가 한사람이 아머리 보코, 이 짐이서 살기
 무심지 앓소²란라 그래서 아머리가, 무심기는 무엇이 무심라 말보
 누는 미신을 믿지 앓소. 짐이 많으면 재산이 앓는² 앓이 앓²하설라.

이 짐이 와서 거이 두레나 살아오 사람의 곡소리도 뜻 들코 아이 들들이
 저저로 열리거나 갈리든 일이 없었다 아머리가 농사를 해서 실권산이
 좀 더이 앓다. 누도 이혼이서 7년제를 준 앓라 1927년이 유복타스코서
 고려사업학교에 입학했다 누이 학업이 깨쳐서 앓으로² 앓²하설라

1928년 초에 사영삼 필모에 대해 썬사꿈가(고려사람들이 이혼은
 려지² 앓²하설라)로 이사²였라 썬사꿈가는 추풍사사 이 출은²
 썬이는 거이 300호나 되는 큰 출이다 현대적 출라이다 만중등학교,
 우체국, 상점, 제분소, 음식점, 교회당 나중에 출청년들이 교회당을
 재건 하코 구락부를 만들었다

이 출이 썬사꿈가, 크로우름가 재타거우가 출함해서 대연양
 조함을 설립했라 여조함에서² 아머리까지 책임 사업을 했라.

1929년은 큰 흉년이라 가뜰이 심은² 곡식이 라 말라 아머리 씨도
 거두었다. 2강시에 '해평양조함' 강이서로 최명우가 책임이라
 앓²하설라 가뜰 때후에 조함원들이 주는 것은 보코 최명우가 조함원
 들을 녀여 살리길 리고² 앓²하설라 말이 말각 되자 짐나서 중곡으로 도망칠라.
 그때 책임자들이 아주 겸손하고 양심적으로 앓²하설라 아머리가
 조함에서 책임적 사업을 했은² 앓²하설라 짐에 는 먹은 것이
 없²하설라. 하루이 저우 두 끼를 먹고 살았라

썬사꿈가이 로련회고소메르 개이원 리 예브또게야가 살고
 앓²하설라 22세 이녀사가 고려사람들중에서 유일한 리 예브또게야
 무식하나 조함에서 문조함으로 일하면서 조함원들의 칭찬을 앓²하설라
 이녀사가 이출 소메르 위원장으로 활약 할 때 앓²하설라 가뜰 이
 시 소메르에서 리드원 한사람을 볼 앓²하설라 이 리드원이 농감사출은
 나갔다가 2강이 준라고 곡식단을 ~~볼~~ 앓²하설라 2번질이 리 예브또게야
 에게 보코² 리자 예브또게야 2리드원은 2 여는² 나로 쫓아² 앓²하설라
 2리드 이사실을 리각이화 불코² 앓²하설라 2리드원을 강에서 ^{출간시키라고} 앓²하설라

제리 그랬다 사랑에서 할 수 없이 그를 출강했다 그 당시 시에서 쓰는 기념행사가 있는년 리예브도끼이를 기념행사에 초청되었다 그러 때에 언더의 신이 이렇게 들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1924년 가을에 유스키르코시 고려 시업 학교에 입학했다 오 황환의 짐이 와있으면서 공부했다 고려사립학교가 3년제라 중학년에서 공부하다가 즉흥참생과 공론하던 참에서 돈을 훔쳐가지라 모스크바 공부를 떠났다 그 당시 모스크바로 공부하려 가는 것이 류팅이 없다 막심까(하트렌차)이 알아 즉주일이러 돼서 모스크바이 도착했다 그 당시 모스크바이 고려주학부가 있었다 이 고려주학부내에 학생소매가 있었는데 이 학생소매는 각지에서 온 학생들을 입학소개하러 주었다 우리는 늦게 오길래 모스크바이는 자리가 없고 우크라이나 수도 하리코프를 갈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하리코프로 왔다 여기에도 폴라르스크 자리에 고려주학부가 있다 여기서 나를 니콜라예브시를 라견한다 이 때까지 오고나니 돈이 한 푼도 없다 굶는 단이라 하느수 없이 니콜라예브시 공청이던 회로 찾아 왔다 공청에서 만났다. 그가 나하고 어름름이 없다고 하니 묻는다 (그때 공청원이 하지 않으르 가자고 하면 어름름이 없어야 했다) 어름름이 없으리 하리 공청원이 어떻게 관하는가라니 부를 책만 한다. 내가 지류 돈이 없어서 굶는 리 하리 공청미사가 관참 생각 하다가 소개서를 쓰여 주던서 나는 "비성년 로동학생"으로 가라라 한다 그래서 학원로 왔다 학원원장이 나를 친히 데리다 학원아이들은 나를 가쁘게 맞아한다 이 학원은 로동자를 자식이 여기 와서 여러가지 기술은 배운다 자그만한 공장이라 철공실, 목공실, 자물실, 기차가 있다 나는 목공실에 배치되어 인화자가 9월에 로동학생이 입학했다 1930년에 학원을 졸업했다 이 로동학생은 니콜라예브 조선(朝鮮) 대학 산하에 있다 그래서 로동학생은 졸업한 학생들은 극세원으로 대학에 갈는다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중학원은 졸업하지 못하니 영어나서 자기 유학은 맞은 점이 왔다. 건강이 회복 됐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부하려 못 갔다 여기서 대학들이 같이고 말았다

최후송이 강이외로 있었다

라 리츠 훈락 력사를 간략히 말하리라.

라 리츠는 백호를 넘는 큰 러시아 훈이다 이훈에 훈가 힘이 있고 양철 깎듯
들어 있다 대개 무호동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호호를 겨우으로
보아 형산한다"는 구호가 나와 나중 이훈에서 살던 무호동들은 강그리
형산하리 고려사람들에게 이훈은 ^{남해}해역이다. 고려사람들이 이훈이 오자
극성(極星) 조항을 조직했다 그때 "극성" 조항이 면간에서 평정
연월라 이사해 문책해이 훈주면이 있는 최녀자를 개간하리
12년사를 시작했다 농사가 잘 됐다 12년사 이기 들은 수확은 보라 곡물
매수 (국가에 바치든 헌물) 에서 어느때나 최녀자를 찾이 했다
구역출판지이 "극성 끝으로" 재조 심연라 고려사람들처럼 무르려한
면적은 드물거니와

라 리츠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은근히 기억했다 때로는 우물에
특약 ^{같이} 넣는 일도 있었다. 이런 미합한 일도 있었다 아마 1936년
가을이 빛은 열이래 기억 된라 "극성 끝으로" 농장이 불훈이서 면다
연어져 있었다 그래서 극로 공청원들이 많으면 농장은 지리인 일었다
그때가 공청이외로 일었다. 하루는 이리과 바한가지로 김동준, 백형석
등 공청원을 타수를 처라 농장으로 배 보냈다 밤이 어떤 읍들이
등 공청원이 있는 타수씩이 붙은 일었다 타수씩이 전소되자 등 공청원이
타수씩 속에서 타수였다 그때 12년적기 관들이 이 ~~업~~ 사설은
위하일라고 목척힘은 ~~사~~했으나 여부결과 드물거두고 일었다.

강제 이주

1937년 9월이래 뒤동에서 살던 고려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 시킨다는 말이 떠돈다 나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오자일수가 없다" 했다. 하루는 구역에서 사복한 두 사람이 와서 강
이서와 조항이던 장을 찾는다 이 사람들이 왔다 가자 언젠 ~~말~~ 말
홍희가 조항 된다 홍희에서 강이서기 긴 말 없이 "뒤동에서 어떤
고려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 이주 시킨다는 상무의 지시가 있소,
우리 끝으로 9월 십일이 떠나게 되소. 땀은 땀을 땅속과 여부자리
간단 소지품을 가지시오" 한다 이것은 과연 천천 1억 력이다, 여기이
오래 백여사건 사람들이 짐, 가족, 처친, 가산 짐들, 나뭇길지 않은
채소 기우에 살림에 필요한 재물은 가져 언었다 이것을 할 시간도

있거기와 사슴사냥도 없었단다 이혼에서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귀
고려 사람들이 가려내게 되련 만은 것이 제끼 차려 자네 라는 생각하
출아 그렇다 하긴 죽가에서 할가르로 짐, 가죽 알곡은 싹과 어떤사람은
적분하인 심술이 내서 짐안에 있는 가죽, 꿀, 열 등을 두꺼운 등고 모조리 깨워
되자, 그, 오리 같은 것은 동양과 잠이아라고 그러했다

9월 심술이 구역에서 사복한 몇 사람과 내주원 몇 사람이 와서 이말리
러날 차이를 하하인 울러 란라 짐은 사람들이 도모하인 아이는 두문이를
알는 사람들이 화물 자동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나갔과 저택 이혼이나
러서란 때 목축은 수송하던 화물차를 역에 들여 란라 이말리 차에
모르라고 내주원들이 명령하단다 아이들 울음소리, 아이들을 활는 이혼들
소리, 알는 사람들의 산음소리 이것은 관세관은 ^한관세관이라 그때 이 잠현을
화명 하단다면 이영하를 보고 을 사람도 있는 것이라 저택 11시나 돼서
기차역에 몰랐과 한 차량이 8부구가 한라 차량 안에서 가죽 짐대가
풀기고 차량 복판에 난로가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없라 그때 우레^성에 퍼섯라
나는 가지보 때가 만연다. 나아를 이물 한아 놓고 들연라

우리^가란 열차에서 400 명이 몰랐과 그 중에 알는 사람들이 없었라
그러나 이생화라고 없고 이사도 없고 관료원도 없었라 아르우리가 한 화물
열차이 목축을 수송 할 때에 는 수의가 꼭 러라 다녔 다르한라 그러나
정원 강국이 이주 원들은 소나 돼지만 볼라게 허용한 셈이라

그런데 원 일인지 러나 지 달고 서있라 가 다음날 아침 열차시나 돼서
천천히 러나라 기적 소리가 들린 다 이 기적 소리는 마치 강제로 싹러가는
사람들이 물문을 흔하는 것 같라 차량 끝 앞에서, "원들이여 잘 된 거라
습어 말라 또 목반이 없으라"고 하면서 수건을 내 흔들는 사람도 없었라
르시아 사람들도 심심해서 그러는지, 떠워서 그러는지 알수 없으나 손을
내 흔들는 사람도 있고 1말을 내 흔들는 인간 르러기도 있었라

우리 열차가 연기를 뿜으면서 힘차게 갈뻐라 그런데 원 일인지 광에서 화추중,
끌호르쉬원광 김복현이 물이리 앓는다 차가 러날 직후에 그들을
해 풀 뻐라르 할라 그들이 영 5 원이 라고 말했라 그때 나는 어떤
생각에 잠겼라 나의 아버지가 여기에 끼었라 그런 저물들의 운명을
연히 북할 것이^나한라 내 아버지가 저물들과 같이 사영 하랴. "극성
끌호르가 고아로 될 셈이라 그래도 무서워서 시비를 캐는 사람이 없었라

~~우리 열차가 들리는 한들이 가고 도시 동에 끼어라 한 갈바라가 사피르~~

우리 련차가 갈나라가 어느 때나 세웁에 세운라 그것은 세가 어려우
지고 명줄은 많지 않이라 한다

한말은 이런 일로 보았라 우리 련차가 세미리아의 (변환)을 할사
라가 떠난 소도시의 결이 갠라 세운라 우리 련차를 보고이사의
사람들이 화하고 쓸어 나온다. 우리 련차가 많은 도사들은 흥과해도
우리를 환영하는 일이 없었더니 내시의 주민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구나 하인들 기이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동문연이 새집들이 나라끼 되 면 그들은 구경하려
프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 사람들은 이기가 작고 의무가 많고. 크가
원숭이 큰 처럼 생기고 이따 미칠이 있는 흉한 괴물로 알고 구경하려
나왔라 목서치서인리 우리 결으로 안나오고 전야에서서 저이
저리 죽이라고 속권거리면서 웃고 손가락질한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쓸어가서 "당신들이 우리를 구경하려 왔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오, 아마 후고려 사람들은 처음부터 양이고,
우리 서로 연극을 익히시다 하고 손을 내리니 그중 한 사람이 나와서
악수하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사 고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하는 것을 알았소"한다. 귀중이 손을 내린 때라 이관경을 산되런
내무원들이 귀중을 쫓아 버릴라 마한 일이 한 특면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미리아 사람들의 문화정도가 북극을 알았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잘못을 없다 상무의 앞은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정행이
라 해결된 듯이 말하되만 사실은 팔공의 ~~말~~ 우리 련차가
가다가 세웁에 떠는 때나 세운라 그것은 세가 어려우지고 전야명류행은
이망함이라 한다

10월말에 우리 련차가 라스펜트 시주연에와 갔었다. 차양에서
많은 세우었다 날이 밝자 차창으로 많은 내무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 열두시나 돼서 내무원들이 출입구를 열고 차양에서 다들 내리
라고 명령한다 ~~한 내무원~~의 손이 종이장을 든 한 내무원이 "귀
조함"원들은 한 장소에 모이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저이 300명 (아이들
함해세) 이나 되는 조함 전원이 짐함했다. 한참있다가 우리를 ~~밖으로~~
뒤돌로 서서 내무원들이 뒤를 따라 뜰로 나왔라 짐차들이 대기하러
있다. 스무명씩 차에하라고 내무원이 명령한다 짐사후 우리를
뒤를 짐차들이 떠난다 어리코 실어가다가 해서 목리후서 하라

집회들이 한한 칼바라가 우리를 갈말속이갓라 내려놓는다 어느 때
우리에코들이 살다가 내버린 것이 푸티저하는 흙집 몇채 뿐이라 다른
것들은 없다 보기래와 여러래들이 옥실편라 사방을 살피 보나
없다 미개척지라

사람들이 두목히서일라. 이갈말속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쪽계산란
만민가!" 하고 저마다 의심하는 모양이라 그러나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
도 없라 끄터사람의 생활력은 어느편쪽이 미칼마음이 강하라 여기로
모자 골장 조합총회를 연그 임시위원장을 선출했라 강에서는 강
의서를 ~~작성~~ ^{작성}했라 일어서작 됐라 아이들이 팔안 여러이들과 로인들을 현재
있는 집들이 듣기 했라. 다른사람들을 천막기서 살기했라. 한터갈로
우르래를 세우기 시작했라 한주일지나자 갈말속이 수심개 우르래가
나라났다. 쾰르르 전원이 흥동원하여 흙집은 질이 시작했라 석갈이
지나자 거리 좌우에 많은 흙집들이 세워 했라. 아제는 완전한 마을이
늘고, 학아소 건설이 시작했라. 거이집스마라 우물을 판라. 우리에코들은
우물을 안 먹고 흐르는 물만 먹기 때문에 여기이 우물이 하나도 없었라

제일큰 문제는 세해농사들이 문제라. 즉년에는 갈말뿐이고 때가
말도 없었라 그래서 갈말은 일구고 여러를 심어야 했라 이듬해 봄에
여러를 심었라 처너지라 여러가 잘 됐라 가을에 우리에코스 관에서 전래있는
여수학교를 건우었라 석양 때문이 문살할 달모가 없었라 국가에서
삼년동안 국가근로자들을 면제했라 조합원들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라. 거이집스마라 자정 거를가지고 왔었다.

세해가 지나자 주혁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고 학교, 학아소, 구락부가
열렸라. 즉성 쾰르르 의 소들이 라스켄트 주에서 짜자했라.

1938년 삼월이라 산아보진라고 밤낮 일라런 우수한 조합원
30명을 맘중이 몰잠아 갔라 이것은 대중적 집거라 그 때는 대중적
집거라는 말을 못했라 말했라간 몰잠혀 가는 달이었던라.

나도 취질난 처도 됐라 많이 자는 리푸른모자 쓴 (그때 내무인민부
위원들이 탈게물리슴) 세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내양이 떨어든다.
다짜고짜로 나보고 의복을 입으라 한라 어느경찰이라 안복중하긴
내가 의복을 입었라 말도없이 손짓으로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있어 나왔라 한사람이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타라 그라 불
치들이 여럿게나되는 라스켄트 큰 감옥으로 나를 실어 왔라

있습니라'라니까 심사원이 ,, 알만 할나라 보름이면 이이른안아
보겠습니라 그동안감안애가있시오"한다.

감안 생활을 좀더 알리었다. 이생에서 말하마와 같이 감안
공기가 모르라시 자리부터가자르 차례로 감안공기를 뿜아낸다. 가혹
내에서 쓰는 은어가 있다. 짐십 (르시아 말 인체스)은 말라드라르
하르 죄인들은 실고 관내는 화르점라르 해서 까마쥐라고 부르라 나가
있던 목살이 정신이명 활라 르 사값이있었다 그중 한사값은 병라게
알아 앓라가도 자기식연애물을 라라 그레르 쓰지운 줄 른다. 절이
사값이 없으면 물에 화죽은수오 앓라 라르한 사값은 알아서 그제
웃기만하라가 한곳만 미라블런치 말없이 앓아있다. 목살에치장기도
잘 논다. 죄인들 중에 나방을 죽느라서 장기애르 흘출이 만드는 사값이 있다.
장기 환은 손수건에글인다 그라라가도 망점결이 있게 되던 볼량라
나에 아끼다 짐십월이 지나면 또 장기싸르 받든다 나눈 장기를 좋아하
라는데 그라 심사원한제 시간은 보냈다

내가 있던 목살에^{정사}는어인은 앓고 정치병들이 앓다 그들이 서로 다주거나 때리는
것은 나르 못 보라라 서로 돕고 조연하르 화목하게 산다. 짐에치 사색이 들어
화도 혼자 먹는 힘이 없어 적은것이라드 서로 나누어먹는다 죄수들이 절방과
서로련락 잘 한다 먹이 고무를 벌여내고 신을 한다. 관식후깡도 한다
우리 목살에서 한사값이 조이와 못을 칼라르 몇인종자 권점사가 들어와 그리
말은 라든과 나서 그리 모주어 앓한인도 있다

나더 심사원 데르^나나철꼬가 두죽일이면 해평화평라고 할것이 두같이
지나르 하우 말이 없다 그 동안 나는 활만 몹시 상신련라 여러 여머자가
있을 하사라가 무슨 오주^{한적이야 아닐가 그러서}라~~는~~가~~의~~ 5.1절은 감옥에서
뜻이 났다. 큰 병절에 한때 관 벽이 짙는가 해서 은근히 기다리었다 그
만래르 병절 말라드 가 더 북해질라 그절드 랑연하라 죄인들게 무슨 병절이
있겠는가 이아르 5월 1일만이 쯤하나를 이루었는데 그 쯤이 아극 이상
하라 데스켄트 감옥 값이 갈라진다. 1베라 (나더치)가 나를 찾아왔다
이제는 그깡 앓았으니 짐으로 가자르 비손을 잡아 라브다 깨고 보나 쯤이
나는 쯤을 벌는 사람이 아나라 그라나 쯤이 하르 이상에서 혼자 생각했다
5월 8일 밤세시에 ,,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나를 부른다 죄인들끼 무슨
짐이 앓겠는가 그레³릿은 가져고 나오라라 한다. 이 호출이 나게 되던 죄수
들이 띠어 들 쯤한다. 너사값은 다른 목살로 이동한다느니, 강제수동으로
가져 간다느니

지어는 흥산할라는 죄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석방할라는 말을 안한다
 내가 감옥 앞이 나서 "까리가" 일찍 나를 데리고 갔다 나의 심사원
 비로스나첸코가 나를 안내할라 차가 몇 분간 같이 리나창고 비슷한 길라간
 간흥 건물 앞이 와 선다 심사원이 나를 데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 온다.
 건물 안쪽의 실이 의복 수천벌이 걸려 있다 이것이 라죽은 사람들의
 의복이라고 생각하니 울어 아득해 전라 심사원이 나보고 - 여기서
 향신이 마음에 드는 의복을 골라 입으시오 지금 입은 의복을 ^{입고} 의복
 가 길시오 - 한다 나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의복을 골라 입을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락치는 대로 짐이 업었다 그랬더니 심사원이 나보고
 - 왜 좋은 것을 골라 입지 못하리 그런 것은 아연소도 - 한다 나는 아무
 래라도 안 했다. 심사원이 이 건물에서 나와 나를 데리고 여와 비슷한 건물로
 들어 간다 이 건물 안이 길라간 상이 있는데 그 상이 가운뎃길로 호수현
 개의 공청증이 붙여 있다 나는 이 수 많은 공청증을 보고 이것이 라 흥산당
 했거나 감옥에서 선업하는 공청원들의 명증이 ^{부하}인 생각해보니
 가가 막힌다. 나는 그때 공청원이라 쉽게 명증을 찾았다. 이 건물에서
 나왔나 건물 앞이 까마귀는 없고 승모차 한 대가 서 있다 심사원이
 나를 차에 태운다 모를도 못 해서 우리가 한승용차가 관화국 내무인만
 슈원부 건물 앞이 와 선다 심사원이 나를 데리고 건물 비로 들어 간다.
 국장실이 다 한참 있다 국장이 나를 데리고 오라 한다. 국장이 일어나서
 나와 악수하고 나를 앉드라 한다 국장이 나하고 하는 말이 - 당신이
 감옥에 와 있는 것을 노려서 마시오" 하인 내 란을 떨더니 문서첩을
 꼬이 번다 그 속에서 ^{장의} 한 장을 내 앞에 내놓으면서 읽어 보라
 한다. 나는 그 종이 쓴 글은 다 읽은 생각이 있었다 그제 누구의 수를
 인가를 본분이었다. 내가 - 알만 합니다" 하리 그 종이 란을 국장에게
 드로 주었다. 국장하는 말이 "당신 무한이 쓰이 드 주권은 하해 받은 일은
 했습니까" 말을 하리 한다 안 하리 열은 했습니까 하니 나는 이어지
 들 면은 알수 없었다. 국장에게 하리 지에 관한 말을 물어 보고 싶었으나
 그만 두었다. 국장이 나보고 - 당신이 짐이 가서 이 사람들과 볼 면을
 말라서 안 하리 나다 그것은 당신께 물리 합니다" 한다 나는
 - 오지 알았습니까" 하리 국장 양에서 나왔나. 비로스나첸코가 데리고
 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빌노들이 둘러 싸운 안으로 들어 온다 드는다
 서니 간흥 역은 짐하나가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니 권인 ^들 ~~사람~~ ^들 ~~이~~ ^있 ~~다~~

레코르스나 찰스 가 - 이문을 잘 대접 하시오" 라는 문헌이 령 령 한다
 글인이 - 예, 알았습니까" 하니까 학한가 심사원이 나보고 그러면 식사를
 하십시오, 한시간 후에 또 오겠습니다" 라는 간다 후사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 왔다 비고 프렌 김이 잘 먹었다 심사원이 들어 왔다 - 식사를 하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묻는다 내가 - 예, 많이 먹었습니다" 했나 심사원이 나보고 예제
 열두시가 되면 감신무인이 감신레리려 용나다 그러다가 길은 뜻 찾은가 화
 감신 부안을 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나와 롱갑한다

이 심사원은 소박하고 침착하고 쾌적한 사람이다 나 심사원도 사실은
 푸른보자른 사람이다 2 당시의 푸른보자른 사람들은 이 예절에나 사람들은
 못되게 못했는지 아이들이 울다가도 푸른보자른 나하면 울을 근심하고
 한다

열두시에 정말 메라가 왔다 심사원이 나의 처를 보고 - 딱딱히 보시듯
 저 분이 감신 부인이 용소" 하면서 롱갑한다 나는 나의 심사원을 인식하
 메라를 데리고 여기까지 나왔다. 심사원이 앉아서 우리를 전송한다.
 푸이류코로 나왔다 거기서 걸어오는데, "죽은 팔호즈" 문헌들이 우리 보고 처를
 데리고 한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고 두리서 걸어 왔다 김이 들어서 어머니가
 기쁘다고 있었다 나를 토음하러 두신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보고 "두시기는 왜
 유심니까, 내가 물어 왔는데" 라는 어머니를 의안했다 내가 물어 왔다는
 말을 듣고 등 두드려 찾아 왔다 늦게까지 등 두드려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
 했다

어머니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 내가 간혹에 우리 짐에서 권총과
 만등 메라가 나다 볼라 문헌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출간 강
 해보라" 언차 북강 됐다" 하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했다.

이것은 다 큰 문제가 아니라 몰 참쳐 간식들이라 해서 유치원에 서
 일하던 나의 처를 면증장으로 보냈다 아이가 어머니의 짐을 못 먹어서
 그렇게 생화 된 어머니가 어떤 반값이다 때가 늦었다 휴이 죽었다. 두살
 난 딸도 잘 거두지 못해 죽었다. 두 딸 동안에 죽어 간 것은 이었다
 아내는 이 미움을 아껴 배워 못해 메라와 10명 이틀이 죽어 죽자 살아간다
 하긴 어떤 미움을 내 속으로만 겪은 것이 아니다 이사후 한해 동안 우리로함
 에서 지어 백여명 아이는 이 죽었다. 그럴 밖에 없다 아이는 이 유르파
 생활을 하다가 여러가지 10명에 걸쳐 죽었다 이것이 이사후 제일 큰 미구
 이다 그러나 정권 강국을 아랑 못 안한다 어느 한 쪽으로에서 돼지 생키

1945년 8월 9일이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을 때
 쓰리드나. 친척과 구역 공사들^{연무}에서 처음 조선사람들을 중간복무^가 부르다
 그때 우리 조항에서나, 김육천, 오자환이 구역 공사들^{연무}의 정명장을 맡았다
 정명장을 맡아 두 나디 기쁜 두가지라 첫째는 조선사람들을 중간복무^가 부르
 아저는 조선사람이 사람의구실을 하게 될라는 기쁜 두번째는, 조선에 가게
 되면 흑아머리를 만날 수 있을라는 기쁜이라

그때 라스켄트주 각구역에서 29명이 정명됐다 8월 15일이 (날과 똑같이
 못하라) 우리 일행이 라스켄트를 떠나 연해주 우수리아스크시에 도착했다
 이 시에 2-3년간 체류하면서 연해주 전사^{연무}의 해방한 지시를 받고 권복을
 입고 여느 할 포명부대에 편입되어 중국 도시들인 훈춘, 홍정, 길림 ~~등~~ ^등 ~~등~~ ^등
 지나 조선 땅이 들어섰다. 권용 련차가 동성역에 와 간다는 동성서 "선물^이"
 선 내 고향 불산동이 자척이라 사람이 거기만 땅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들어가 보고갈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중간원^{복무}이라 할수없이 불산등은 마라
 보고만 있었다 우리가 한 권용 련차가 동성, 화련, 무령, 청진, 죽은, 성진, 간현
 홍천, 홍천, 함흥, 고원 그 밖이 갈도 역들은 지난다 우리는 이역들에서 시편
 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시인들이 조선음식을 많이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먹으라 한다. 너그러기어서 우리를 포용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어린 이들이 우리를 들너서고 웃으면서 기뻐한다 그때 이 감면을 나누지급도
 잊어 않는다.

시인들이 우리보고 이런 질문을 한다. 러시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중간복무를 할수 있는가? 이때까지 어떻게 조선말을 잊어 않았는가?
 소련에 조선학 과가 있는가, 음식제도는 어떻게 하는가 갈도 질문을 했다
 드디어 8월 21일에 우리 권용 련차가 평양역이 들어 왔다 평양
 시인들이 "무도 권대는 우리의 해안자!", "무도 권대 만세!", "조선 헌법
 소련 헌법 헌신 만세!" 기라 함은 프와카르, 른, 른과 나와 열렬히 맞이
 했다. 그때 일이 눈에 환하다.

나는 평양에 도착하자 25권간 7로 정치무이 매치 됐다 7로 권치
 무에서 얼마간 일하 라가 평양 앙송국이 일하 라는 정치무의 명령을
 맡고나^{한선하} 앙송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소련기술자들의 아낌 없는 도움으로
 단기간내에 앙송시선들은 복구하여 앙송을 시작했다. 해안된 조선
 사람의 첫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사람들이 제편으로 전하는 싸소식,
 사회인사들의 연설, 노래를 듣고 펄 깎가어 왔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그런 리유가 있다 시이사항이라고 시간이 가면
 사물이 변하는 법이다. 소련에서 1953년에 독재자 스탈린이 죽고
 흐루쇼브가 정권을 잡았었다. 흐루쇼브가 정권을 잡은 첫날부터
 스탈린의 반례를 낱알이 똑똑히 시작했다. 이에 정은 뒤집어 먹은
 김일성을 등쌀이라 해서 독재자 목책등을 듣이지고 소위 "사상검토"라는
 표명하에 소련, 연안, 남조선에서 온 유능한 간부들을 죽이고, 가두고
 짐새를 붙이고 외국으로 추출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소년만, 공청에서
 자라 임당한 강연들은 실복하기 위하여 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문란
 술책과 망명으로 소련서 온 간부들은 수형했다. 허가야를 삼살할 사정이
 이어 재한 실례의 하나다. 이런 실례도 있다 김일성이 허가야는 김대
 홍장 두 성훈은 몰려놓고 - 두 성훈 등 두, 허가야를이 미식을 세우는
 것이 어찌될지소?" 라는 물었다. 고지식한 두 성훈이 - 그것이 좋겠습나 -
 대답했다. 그 후 두 성훈이 김대 홍장에서 쫓겨났다. 소위 죽가 큰 다스린
 사람이 ^{이렇게} 망명으로 사람을 잡은 수 일만 명이 이 것은 ~~홍성~~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홍성판 여첩이 홍길동을 암해하기 위해 꾸려낸 추악
 하고 무관한 행동은 만물케 한다

"사상검토"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 기록하리 6.25에 대해 잠깐
 말하겠다

6.25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하는 문제는, 군사전문가들, 문학
 학자들 그만이 권위 있는 연사들이 묵침을 증명했다. 나는 군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 이론제에 언급하지 않고 6.25 당시에 우리 망송원들이
 어떻게 일했는가 이에 좀 자세히 말하겠다.

북조선 망송이 6.25 전쟁을 앞두고 리승만 군대가 전쟁은 준비하고
 있고, 인민군대가 38선은 넘어 들어 올 리승만 군대에 공격을 가하리 일하는
 본도를 매시간 전했다. 6.25 전쟁이 말말되기 전 3일전에 ~~이런~~
~~선~~ 중앙당 선전부감 1막 함옥이나를 부른다. 그래서 선전부감은
 찾아간다 1막 함옥 선전부감이야 보고 -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어제
 사흘 후에 무슨 사변이 있는 것이오. 동무는 직장에 들어가서 즉야 작업을
 조직 하고 우수한 망송원들을 여러류 보내지 마오, 이것은 동무만 알고있고,
 아무와도 말하지 마오" 한다. 나도 무관실에서 나와 직장에 와서
 24시간 강연제를 조직하리 일꾼 망송원들을 여러나 보내지 않고
 있었다

이어나라를가 선장부장의 딸이 흔들림 없었다 6월 25일 아침 다섯시에
 중앙광에서 한 사람이 나한테 밀봉한 봉투를 갖다 주면서 - 아침 여섯
 시에 개봉하라 말씀 하라는 것이다. 여섯시가 되자 보름 아침 다섯시에
 라승만 군대가 우리국경을 침입한 라북군인 일병들이 만적은가하리
 인라 라는 방송을 했다. 22대 평양 1만송이 매시간 바라이 볼드를
 전했다. 김일성이 전쟁이 시작된 이튿날 - 괴뢰 정부를 라드하리 남반부를
 해방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위대한 통일을 쫓
 내자 라는 1만송 연설을 했다.

지금와 생각하면 중앙광 선전무장이 사흘후에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여섯}을 알았는지 가히 알만 할 일이다 전쟁을 먼저 시작 한 자들이 아니고
 서는 미연 반은 할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흘후에 일병들이 서울을 침략했다. 이소식은 매시 따라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

10월 20일이 평양이 함락됐다. 이날^{이날}까지 1만송 일들이 평양을
 22가지 알았다 선전성 다른 성들이 평양에서 후퇴했다 그러나
 우리를 후퇴하라는 중앙광의 지시가 없었다. 만 11시 40분
 중앙광에서 허가이가 전화를 한다 - 라선이 정선이 일소 모든
 앞으로 직원을 데리고 라장 떠나오. 짐차 두대를 보내오 한다. 그래서
 내가 짐차 회의를 소집하러 라남을 이른다 1만송 연설녀성들을
 짐차에 태우고 아주 필요한 기자재를 실고 평양을 라노가 버려서
 재도성들을 버려 순천과 개천사이이 개고개가 있다 이병은 놀라
 짐차가 저우 몰리⁴ 이를 오른다 래로는 새삼들이 밀려서 이병은 넘었다
 희천에 다다르니 날이 어둡다 리갈수 없었다 직원이 인은 직리
 있었다 라 많이 상공이 흐름은 거인 로르를 살피는 인은 있었다 희천에
 와서 차를 가당하러 머슴기를 기다리는데 직기가 우리차를 알면하고
 기흥소사를 했다 그 결과 두 짐차가 전소됐다 기자재가 라히아터시⁴ 품시
~~크게 영향~~ 알라 짚었다. 여기서 무너 걸었다. 다리아프고 배고픈라
 그래서 가다가 꿀알을 만나게 되면 생공을 먹기도 했다 한곳은 지노
 갈라니 산 밑에 작은 마을이 있다 직원들이 나보고 - ~~미연~~ 등지 저
 라을에 들어가 봅시다 혹시나 먹을 것이 있는 버리⁴ 로름나라 한다 매가고프기는
 따치 일한이다 수도호의심은가자르 - 씨리 들어가 조습시라 했다
 한 짐에 들어가니 주인은 없고 돼지굴에 짚과 돼지 한 마리가 있었다

한 직원이 나보고 - 워런장 동지 저 돼지를 잡음시다 - 한다 그때 내가 -
 그래서 안 되오 주인 허가없이 어찌 남의 물건이 손을 대면 안되오, 애고 뜰
 대로 참소" 했다 그 후 언다가 또 한 직원이 돼지를 잡자고 나를 불러 언다 그래서
 내가 저 돼지가 폭격이 죽는 것보다 애고 뜰 사람들이 잡아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
 생각하고 직원 보고 - 그러면 강신은 소원대로 하시오 - 하나 좋아 하라 직원들이
 손을 길고 재빨리 잡아서 솔에 넣고 쪄준다. 역시 황혼이 갈은 언다 주인이 들어
 본다 라든 강황해한다 내가 주인 보고 - 주인님이 없는데 도적령사를 해서 안
 돼습니다 - 하나 주인이 - 원, 현반이 만났습시다 돼지를 잡기를 잘 했습시다
 먹일 것도 없거와 폭격이 없어 질 수도 있습시다" 한다 주인이 우리가 애고 뜰 쪄
 와야 하는 모양이다 결말은 두어 가터니 좀 쌀 쪄는 내라 주면서 양을 쪄는
 라고 한다 직원들이 열서구나 좋아서 주인이 죽는 쌀을 만감기 알아가지고
 양을 쪄준다 고기와 양을 푸어 물고 애고 뜰 김이 잘 먹었다 이집에서 자고
 푸름해서 길을 따라와라 이집에서 나오면서 주인 보고 - 적지 않은 고기 장은
 만사시오 - 하인 돈을 주니 - 그제 쓰는 만사시오. 나도 같이 먹었는디 그제
 만체를 내놓았는디 - 한다

이 집을 떠나 자강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벌타이로착 하라 물의에 적기
 할 때가 폭탄을 내리 던질라 그래서 직원들이 길가에 있는 초가집에 들어가
 몸을 감추었다 곧고름계^이침이 폭풍이 폭내질라 적기가 간혹 직원들이 무너진
 집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정리무장이 파탄에 팔을 상한다 가게봉대가
 있어서 고의를 쪄가지 상처를 써냈다. 10월하를 떠나 한참가는 하나
 개천이 보인다 직원들이 북북하라 한다 내가 좋아고 했다 전쟁사라
 북북도 제 때이 북하라 비의를 못 갈아 임어서 몸에서 이(똥)들이 득실질인라
 절레 내기 힘든 언다 그래서 노드라 비의를 벗어 두기 내 우들이 언다 이가 죽으
 라. 이런 "무쾌한 노름을" 한참하는 데 난데 없는 적기 두대가 우리를
 발견하고 내려 쏜다. 저가라 풍속에 들어가 몸을 피했다. 그랬더니 한탄
 분다 한환에 마자 날리는 조각들이 러 추서될라 부상자는 없었다
 구사일생으로 거이한 주인만이 자강도에도착했다

그 때 자강도이 지방 1만송죽이 있었다 그러나 총력이 약해서 원거리에서
 듣지 못했라 여로서이 와엿은 때 전 직원이 문간^한 면 했다. 한 번은
 점심시간이래서 취사실로 달려 오는데, "애- 29" 두대가 활터드라
 울려라 보니 우리를 폭격 하라 하는 것이 큰힘이었다 그래서 만타를
 양공호로 들어가라 내가 소리 칠라 양공호에 들어가라 마자 폭음이 30

키를 재는 듯 하다 조금 잠잠하다와 방공호 속에서 나와보니 우리식량이 작한에
 낫아 간에 못이 없다 그때 적기들이 좀 한 듯에 나와 들었더라면 우리 적의
 들이 점심은 먹다가 몰살했은 것이라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몹시 소름이
 돋는다 하류는 "비-29"형 세대가 자강도에 최발위를 내리 쏘고
 불을 달았다 자강도 (강계)가 기반하 여련다 이런일이 일은 후 자강도에 러
 었은 수 없어서 망송국이 만포로 이동했다 여기 와서 립시로 망송국을 설치
 하고 망송했다. 시일이 가고 짐작 된다 적기 두대가 갈려들어 자강도
 형식으로 만포에 물을 집었다 그날 1명 원이 있던 환자들이 병실에서 먹지
 못하고 죽어 라 하류는 일이 있었다 여남 시편들도 적지 않게 죽었다. 립시로
 설치했던 망송국도 소각했다 그래서 비가 망송원 몇 명과 기술자 몇
 명을 데리고 만포에서 거기 40리나 되는 고산전을 완태하면서 망송했다
 그 당시엔 여기에 근대 망송국이 있었다 고산전은 중국이 지척이라 그래서 인리
 기 일성이 자기의 라 줄들은 데리고 여기로 피신했다.

1951년 15일에 망송위원회의 전원이 만포를 떠나 선캄으로 단량양에 들어
 왔다 거리가 항항이었고 아직 건물들이 하고 있고 연기가 자욱하다 전쟁
 불'길이 근방 꺼전길 같다 말 붙일 곳이 없다. 상임위원회 '방공호가 열려
 이 속에서 언젠가 후회 할 때 사람들은 충성했다라 혼자 참는 피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은 가릴 때가 아니었다 적의 들이
 방공호를 뚫아내고 여기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일에 착수했다 제일 중요한
 물체가 음식수, 전기, 식량 물체다. 이 물체들이 점차적으로 이력 적력 풀려왔다.
 거름과 리승만 군대가 내리려고 간 흥조림, 사향, 기름, 기름, 기름, 기름, 기름
 식료품 들은 모아 두었다라 마른 대로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다가 식료품에
 독약을 섞었는가 해서 처음엔 먹기 서슴서슴 했다 알고보니 그런 것은 없었다
 취차 만주 국가들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먹고 있는 물체가
 이만 고이로 넘었다 각성들, 죽음이 단량양에 들어왔다 거리가 좀 할가를
 띠기 시작했다. 수도가 복구되고 상점들이 열렸다. 허고 1명 원들이
 물은 열었다. 그러나 폭적이 심해서 사람들이 폭적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 것도 습관 돼서 살 수 있었다. 이때 1월 쯤 블란 블리하
 극장이 건설되고 방공호 파를 닦았다. 망송국이 문란불 방공호로
 이동했다. 좀 안전하 해서 망송할 수 없었다 적기들이 배일
 같이 문란불을 폭격한다. 동경 망송이 10월 쯤이 망송이 러는 원이라
 수차 전한다 그러나 우리 망송이 정지되는 날이 없었다

여기에서 기뻐할 한가지 사실은 ^앞이러하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가 1951년 8.15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중앙당 지시에 따라 각종예술단, 무용협주단, 체육단, 학생
 등이 기념준비를 앞다투어 했다. 양송이위원회가 이라체로운 공연프로그램을
 짜내서 나라 양송한다. 지어는 날이어서 여짜리서 이리연 예술단이
 출연한다는 것까지 양송한다. 그런데 전쟁시에 중앙당 지시에
 의해서 ^기일보예보가 금지됐다. 일기예보를 듣고 적기들이 폭격하려고 올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적기가 평양 일기를 흐르리었다
 8.15를 앞두고 양송이 자세한 예술 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 좀 더는 돼서
 내가 선전부장을 찾아가서 8.15 예술 프로그램을 계속 해도 좋을지가
 하고 선전부장을 보고 들으나 - 그냥 계속 하오. 무서울 것 없소 중앙당
 지시도 한다. 내가 속으로 - 아무공중 양송이도 없이 무엇을 보고 저런
 대담한 소리를 하는가 - 하리 생각했다. 가히 알수있는 일이다.
 전쟁 당시의 쓰팔린은 모스크바에서 시련공격 명령을 굉장리 기념
 했다. 크리브리 극석단이 쓰팔린을 미혹한 강. 국가 지도자들이
 등단했다. 그때 모스크바 상공 양송이가 잘 돼 있었다. 적기들이
 함부로 못 날아 든었다.

아마 김일성을 ^{한번}이것을 알고 자기도 한번 전쟁시에 8.15 기념
 하리면서 대담성을 자랑해보리라는 허욕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8월 14일에 전쟁개시후 제일 큰 폭격이 있었다. 적기 "미-29"
 120대가 동원됐다. 할라 마침 흐린 날씨였다. 폭격이 거이서서나
 계속 됐다. 이날 밀집 지대 시프링양이 제일 큰 손실을 감했다.
 점들이 다 파괴되고 많은 시민들이 죽었다. ^뜻이 큰 폭격이 일어나
 많은 이는 ^안있으리나 하리 ~~양송이~~ ^{사람들이} ^안있었다. 그런데
 낮 폭격 본래 뜻지 않은 ^{동원}콜약간 폭격이 일었다. 이 폭격이 사람들이
 구리 죽음을 했다. 자동차들이 시체 큰 실이 됐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른다. 이에 처러 못 미루이 있다. 지금도 그때 사람들의 울음소리 내
 피에 쟁쟁하다.

김일성을 미혹한 강시 지도자들이 8.15를 앞두고 적기들의 폭격이
 심하리라 하는 것은 예전하리 사람들의 주머니를 활기 시켰다. ^말 많은 사람
 들의 생명을 구했는 것이다.

김일성이 없라 책임질 사람이 없라. 그러나 력사는 죽리 않는다. 이

엄중한 사실이 다서는 되꾸 되지 말기위해 후대들이 알아야 할것이다

특약된 사실은 이에첨부하리라

1946년 여름인지 뚝뚝치못하다 그러거러이 맏스-앤길스, 레닌
쓰랄린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던가 어느날밤에이 초상화들이 기총사격을
했다 이 사실을 둘러싸고 말살이 많았라 그러라가 이것은 조만식이
조직한 것이라는 어느 한사람의 결론이 나렸라 그러라 하루아침에 조만식은
재판도 없이 "괴뢰호헌"이 가두었다 그리고 그를 엄격히 감시했다
6.25 전쟁이 시작됐다 후회시기에 조만식은 재판도 없이 총살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 출판물들이 이에 대한 사실을 실지 않고 양동이침묵은
저지였다. 북조선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알아 듣게는 것이 안데르
됐라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범죄적 행행들이 폭탄이 날아나리라고 나는
준게 믿는다.

전쟁은 사람의 양심과 심리를 때는 라침판이라고 환수일라 평화
시기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정작 전쟁이 시작되니 친구고 뉘구다
잊어 버리고 제살 구렁 반다는 사람들을 구는보았다 내식솔들이 역
경양에 있는 줄 미연히 알면서 나보고 식솔들을 말리 소개시키라는
친구나 ~~사람~~ 하나도 없었다 10월 10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날이 늦기
까지 사물시에 일하는데 허가이 전화로 - 남동주 식솔들을 보냈소 -
한다 그래서 내가 - 나는 아직 식솔들을 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못 알았
습니까 - 하니 허가이 - 래일 저녁에 서평양역에서 중앙당
관건을 실을 기차가 224호, 2기차이 식솔들을 자강도로 보내오"한다. 그
당시에 기차가 늦에는 못 간다고 많이 판넌다. 식구는 기차에 보낸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인 줄 미연히 알면서도 할수없이 보내야 했다. 2
기차에 두서식솔은 많이 없었다. 이날 저녁에 깊은 대강대강 꾸려
가지고 식솔들은 데리고 평양역으로 나왔다 회를 열화가 서 있다 내가
역장 보고 - 이차이 식솔은 보내도 좋겠습니까? - 하니 역장이 -
그런 지시를 알았습니까, 미알라 해두시오" 한다. 많이 딱 늦었는데
기차가 224호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역장보고 - 왜 기차가 안러
옵니까? - 지금 광장 224호는 다 정예가서지오" 한다 내가 연신
하고 잠이 왔다. 그후에 한일이 지낸 2날만에 기차가 안러나고
있다가 새벽녘에 224호가 가가 평양서 멀리알고 흥성리밭에
갔다 세웠다. 그날 열두시나 돼서 "미-29"형이 와서 허널은 득격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이 ~~직접~~ ~~하~~라 무중 무권의

나는 이집에서 소련이 뜰 때까지 살았다 우리집 곁에 기석복, 전동혁, 허익 2쌍에 등우들이 살았다 일요일이면 등우들이 우리집에 와서 주패 (손톱프와 비슷하느른), 장기를 즐겼고 점심도 우리집에서 먹는다 즐겨 말하는 것 같아. 비후이 김관(김채명에서) 이 하아름스코에 와서 우리집에 얼마간 왔었다. 김관이 하는 말이 - 불식이 아오. 우리 그때 일요일이면 불식의 집에서 모라 놀지 않앗소. 그때 우리가 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앗소. 그런데 누가 무다가 한 이야기를 하나도 아니. 안동고 단청양 안전죽이가 ~~다~~ 다 아치엇다오. 불식도 아라살이 그때 소련서 물 등우들 많이 있었는데 아나 우리 후에 고자갈 하는 분이 많은 모양이오. 그리고 안전부 누들이 불식의 집을 만등소굴이라고 했다고. 불식이 모기를 잘 잡소. 안왔던 누들의 맘이 일변했소 할라 - 그래서 내가 - 돼지근으로 보면 세상 만물이 다 왜지 처럼 보인다고. 만등우들의 근으로 보면 세상 ^{3년 뒤} ~~사람~~ ^{사람}들이 다 만등 처럼 돼 보일 것이오 - 했다.

1957년 ~~이런~~ ^{3년 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단청양에서 사랑연성자 대회가 소집 됐다. 이 대회가 맥창목, 기석복, 전동혁의 "안랑종파" 행위에 관한 문제를 취급했다. 나도 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의 삼일 전이 사랑에서 한 사람이 나를 찾아 와서 나하고 하는 말이 "이런 사랑연성자 대회에서 위험장 동지가 호를라기 돼 왔습나" 한다 그래서 내가 - 2사람들의 안랑종파 행위를 논르고 어떻게 내가 호를한 말이오, 그리고 누가 시키는 호를은 하라 살지 않소 - 하라 딱 거절했다 이 대회가 거기 가서 시나 전행 됐나 절고자와 호를자들이 암이 거품을 뿜고 맥창목, 기석복, 전동혁에 대한 ~~제~~ ^제 ~~말~~ ^말 ~~간~~ ^간 ~~거~~ ^거 ~~적~~ ^적 ~~말~~ ^말 들려들었다. 이런 심의를 말할수 없다 즉: 전동혁이 한설야와 같이 인도로 갔을 때 전동혁이 한설야를 죽이자고 인도의 한 줌은 골루으로 끌고 들어 갔다 한다 이에서 리 한 거적 말이 러인것인가! 안 딱이 호를이 "갈락"이라 그는 호를은 하면서 김열성의 반세를 섹차레나 되쳤다 큰중이 기립해서 김열성의 반세를 무를라 들기 아차 아차 했다 내가 속으로 "사람의 허물을 쓰고서 어떻게 제의 양심은 팔아 먹은가 이에서 러철면 피한 일도 없은 것이다" 그런데 알수 없는 것은 맥창목, 기석복, 전동혁이 안 딱하지 알은 것이다. 사람이 정이 큰데 죽을지언정 후한은 하지 안아야 할 것이 아닌가!

1957년 1월 10일에 평양시에서 열린 사랑열성자 대회에서 호준 하라는 사랑의 지사를 거절했다, 전쟁 시기에 남보식의 눈전수가 그의 차를 타고 남조선으로 도망했다, 맥언준이 쓴 "거룩하여 빛을 뿜히라"는 시를 망송안했다, 전쟁 시에 항과 협의도 안하고 직원들을 강제로 남씨 말은 가르키했다. 폭격이 심한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것에도 남보식 만한 비감적 행위가 많다. 라고 한다.

망송위원회 호준광 이서도 긴 보고를 했다 그러나 그의 보고가 이상에서 중앙당 지도원이 련거한 비용을 되푸리 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또 리 알은 해야 안은 수도 없다.

이상 문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김일성의 이름을 지워 버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갈 이상이나 나를 죽 살게 줄었다

호준이 시작 된다. 제 마음대로 호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 된 명 록이 ^{관심}라 라 ^{호준자들이} 강에서 검열 말은 종이 족제에 적은 글것은 강유한^한 할 라름이다. 그렇기 때 호준 자들의 비용이 미숙하다. 그들의 호준을 종합 하면 이렇다 "남보식은 만감적 만연적 분자다 이런 자를 우리 강에 들 수 없다 할시 마이어 강에서 쫓아 내야 한다 그러야 우리 강이 조출해 현명하게 될 것이다 강은 앞으로 남보식과 같은 분자들과 적극 싸울 것이다 등등이리 호준이 심어 면이 참가했는데 나를 강에서 모라 내야 한다는 것뿐이리 강에 남겨 두자는 호준 자도 없었다. 이것은 자리 알만한 일이라 이상에서 만 한야와 같이 알량이 명아리 까듯 강에서 쫓아 내기 때문이리

대회의 때 나보고 자기 입장을 극도로 것이라 자기 판단만 양심적으로 하면 강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강총회의 목적은, 내가 만감행위와 만연적 행위를 감행^한 자 없으므로 이런 일이 안 볼 수 없으니까 나를 용서 해 주십시오 하고 강회의 이 목적을 풀고 자백하라는 데 있다. 이것은 과연 천인공노할 어리석이 짝이 없는 일이다 만감적, 만연적 행위를 감행한 일이 없는 내가 무슨 자백을 한단 말인가 이들의 생각 같애서 ^{회의를} 질질 끌고 차를 못 걸러가 준다면 결국 자백할 것이고 인정할 노릇이리 나도 겁쟁이도 아니고 이공은 자도 아니다.

강회의의 진행중이 체면이나 강회의에서 쫓아냈다 내가 회의석에 있으면 강원들이 아러내서 말은 못 한다 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 했다 "강원의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언을 강 회의에서 쫓아 내는 것이 강구약에 위한 되지 않느냐 이것은 강회가

아니라 일본 현명이다. - 라고,

강회의 전행 도를 내가 두면이나 중앙강 간부무강 리 호순 동지를 만나
(리 호순은 내가 존경한 자 일본은 소련군대가 감옥을 연고 내놓은 문이다)
나를 만간, 만인반적분자라고 함이다 나를 인위적으로 만강적 만인반적
분자로 만들려고 함이다 이 이론은 일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하니
리 호순 동지가 - 지금 때가 그런 때오 죽참고있소. 동우를 강에서 출강은 못
줄거요 - 한나 ~~선전~~ ^{선전} ~~선전~~ ^{선전} 허정숙 상을 찾아가서 이런 맹랑한 일본행이라
허정숙 상의 리 강도 리 호순 동지가 말한 것과 유사하라 함은 2 강식이
리 호순이나 허정숙이 남분식의 사상검토를 중지하시오 할수 없나라 이럴
이런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 하나뿐이요

하엿은, "사상검토" 과정에서 가장 충실한 양심 있고 지혜 들은 미국
저사, 사회인사, 학자, 작가, 시인, 작곡가 예술인들이 애대하게 숙청된
사실을 폭로하네야 한다. ~~우리후대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할라~~
~~그것이 우리후대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수 있다.~~
그것이 우리후대들이 이 미국적 역사를
알수 있다.

회의의 이강이 회의바적씩 날기 나에게 인권을 주면서 간란이 면하라고
한다 니말의 도지는 다들과 같다.

강에서 망동사임을 거절하려 왔다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책임
판리 나와는 아무 말없이 내 뒤에서 거절을 전행 했다 이일이 좀 심심
하다. 더 밍한것은 이리만 구태여 막하려 하지 않는다. 다 한가지만
말라겠다. 지난 망동연고 들을 들춘다, 격원들과 감화한다 비울전수와 들로
한다 이 모든 것이 왜 미일리에서 전행 했는지 나는 리해 할수 없다.

나는 매일 전이 참가할 한사람이라 부의무원은 조선 해방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회의석에서 수군수군한다) 나는 6.25를 통해 망동사임에 전력을
기했다. 나는 국가에서 "로력출장" "국기출장2급" 2등이 내 말을 말한다.
나는 내가 만강적 만인반적 행동 감행 했다는것은 전적으로 무인한라
나는 내가 안 할일을 했다고 강은 속일수 없다. 강은 기쁘다는 리는 엄중
하라. 내가 알건대 현 망동기자가 쓴 기사에서 경애하는 수상님의
이름은 비글리나 지워이런것이 제일 큰 죄질 같라 그런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침수할수 없다, 듣기 좋은 록자 약이도 한 두번이런 뿐이 있다
45문도 못 리는 기사에서 우리 수상님 이름이 열다섯 번이나 반복 됐라
그래서 필로 이상인것을 지워이런라. 이것이고 의정인가 아닌가 이
래 해서 2 망동 기사를 강원들 앞에 내놓고 리지는 것이 정당하라고 본다

봤습시다 - 한라 그래서 내가 - 정리에서 무슨 부정사건이 있소? 라는 물음에
 정 리 부 장 이 - 우리가 정사하는 기관인데까, 주가 예산대로 돈을 쓰는데 무슨
 부정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시다 - 한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하게 하오
 집권 원이 왔으며 집권을 시킬 것이지. 한라 집권이 시작된 이후 정 리 부 장 이
 수차 들어와서 재정성에서 감사원이 전방시기에 야채농산물한것을 세밀히
 들추고 있더라고 한라. 그때 내 생각이. 어리 들추^원플라지 무엇이 나하 나하가.
 야채를 질어서 직원이 찍었는지 자사를 했나" 나리했다

일주일 후에 정 리 부 장 이 재정성에서 온 집권원^원을 데리고 내 말^말로 들어왔고
 정 리 부 장 이 - 이제는 집권이 끝났습시다 이제 위원장 동지 수표만 두시면
 라 됩시다 - 한라 그래서 내가 - 나는 그 조서에 수표를 들수없소 - 하니 정 리
 부 장 이 - 정 리 사^사에서 흔들 것이 없습시다 다 잘 됐습시다 - 한라 내가 - 알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추적 문제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기관 책임자에 재정성
 에서 ^원집 권 원 이 ^원집 권 을 왔다는 말^말이 없^없다 이 때 까지 일라가 집권
 조서에 수표를 두라는 것이 몰라는 말이요. 나는 알형이 아니고 - 하고 잠아 띠리라
 그러자 재정성에서 온 집권원^원이 - 제가 사업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실려했
 습시다 용서 하십시오. 수표를 두서 어 극심사요 - 한라 나는 그때 그 집권원의 행태가
 괴상 해서 그를 흔계 하려 했다 내가 조서에 수표하고 집권원을 들고 -
 그를 기관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 했다

나를 "상상검토"를 해서 랑에서 비 잘못 책임직에서 켜이러라 언야망이
 수표로 돌아가자 또 다른 수책을 꾸려냈다 이연에는 만송여원회 정 리
 사업을 들쳐가지고 무슨 부정사건이 있게 되면 그것은 흐짐을 삼나가지고
 나를 구렁 원이 밀어넣으려 언 출책 하지 파한되고 말았다 이말은 다시
 계속 하기로 ^해결서 없이 다른 사실을 말라가았다

1954년 가을에(날자가 기억 안 된다) 파란 수도 따르샤와에서 ^{방송}국제사회
 (약자, 오이르) 총회가 있었다 그 총회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위원으로 참석했다 나는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때 따르샤와 극대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로 허학봉 선생이가 계셨다 허학봉 선생을 ^원선생이
 청진 감독들을 열자 감독에서 나온 ^원혁 5화 혁명가 ^원말이 나온 김에 러 볼라리
 한라 청진시원들이 한 거리를 허학봉 ^원거리라 ^원주른 일이 있다 김일성이 이것은
 알고 묻이 삼^원후까지 올라 함복사람들을 혼낸 일이 있다 "상상검토" 랑서기이
 선생도 숙청당했다.

허국보 선생이 내가 따르샤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이런은 정사행에서

내가 이 말을 한 할려다가 감신이 심보령님이 아들이라고 하니 ^말 ^한 ^다 ^는 ^것 ^이 ^아 ^들 ^의 ^심 ^정 ^은 ^내 ^가 ^리 ^해 ^할 ^수 ^있 ^는 ^일 ^이 ^오 ^트 ^어 ^러 ^기 ^에 ^는 ^말 ^이 ^다.

그날 김항숙 함사에 계시어 ^말 ^은 ^듣 ^은 ^후 ^중 ^중 ^속 ^에 ^서 ^아 ^이 ^지 ^를 ^찾 ^아 ^알 ^았 ^다.
즐거워 말라거나와 소련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묘를 찾으려 ^주 ^척 ^힘 ^을 ^썼 ^{으나}
또한 일이 아무 결과도 못 얻었다.

김항숙 한말 러 ^말 ^내 ^서 ^이 ^아 ^기 ^를 ^보 ^고 ^했 ^{으나} ^못 ^만 ^났 ^다 ^중 ^앙 ^랑 ^개 ^념 ^무 ^이 ^기 ^어 ^라 ^라 ^가 ^어 ^러 ^로 ^간 ^다 ^고 ^하 ^라 ^아 ^나 ^남 ^포 ^신 ^으 ^로 ^말 ^변 ^보 ^야 ^이 ^다.

한편은 중앙랑에서 ^말 ^하 ^던 ^김 ^정 ^애 ^가 ^는 ^문 ^이 ^나 ^를 ^찾 ^아 ^알 ^다. 김정애가
남측 - 나는 한 때 남생보라는 문과 같이 ^인 ^한 ^적 ^이 ^있 ^는. 혹시나 동쪽 ^그 ^런 ^문 ^을 ^은
아시는지 - 한다. 내가 그 문이 마르나 ^의 ^무 ^친 ^임 ^나 ^라 ^했 ^다. 김정애가 -
감신 아버지 ^가 ^함 ^정 ^목 ^도 ^어 ^는 ^한 ^출 ^이 ^서 ^선 ^물 ^은 ^감 ^추 ^기 ^위 ^해 ^한 ^약 ^양 ^을 ^얻 ^고
동리 ^이 ^한 ^녀 ^성 ^과 ^동 ^거 ^했 ^는. 그 녀성이 아이 ^로 ^보 ^았 ^는 - 한다 이것은 ^가 ^만 ^의
소식이다. 김정애를 ^집 ^보 ^시 ^자 ^는 ^했 ^{으나} ^일 ^이 ^그 ^렇 ^게 ^못 ^했 ^다. 김정애가 ^말 ^한
아버지가 ^일 ^하 ^시 ^던 ^출 ^이 ^찾 ^아 ^가 ^보 ^{려고} ^결 ^심 ^했 ^{으나} ^사 ^상 ^검 ^찰 ^가 ^서 ^작 ^의 ^자 ^의
계획이 ^라 ^를 ^려 ^자 ^는 ^말 ^{했다}. 이것은 ^후 ^리 ^소 ^설 ^을 ^말 ^할 ^게 ^한 ^다. ^이 ^기 ^문 ^이 ^은
스런 ^서 ^이 ^런 ^면 ^상 ^이 ^잡 ^혀 ^있 ^다 " 김일성 ^독 ^재 ^가 ^인 ^권 ^과 ^자 ^위 ^를 ^진 ^장 ^리 ^알 ^았 ^다
라 ^면 ^내 ^가 ^동 ^생 ^을 ^찾 ^을 ^수 ^도 ^있 ^었 ^다. ^지 ^문 ^이 ^사 ^각 ^이 ^도 ^형 ^류 ^한 ^독 ^재 ^자 ^의 ^아 ^들
김정일이 ^제 ^아 ^기 ^보 ^를 ^다 ^시 ^어 ^면 ^을 ^역 ^삼 ^하 ^는 ^일 ^다 ^우 ^리 ^는 ^이 ^한 ^사 ^를 ^수 ^수
양 ^관 ^할 ^수 ^없 ^다 ^무 ^단 ^오 ^천 ^만 ^동 ^포 ^를 ^김 ^정 ^일 ^과 ^그 ^의 ^조 ^개 ^들 ^의 ^발 ^흥 ^에 ^서 ^땀 ^아 ^내 ^어 ^야 ^할 ^것 ^이 ^다. ^이 ^것 ^은 ^공 ^상 ^이 ^아 ^니 ^라 ^현 ^실 ^이 ^다.

1954년 여름 내가 내각 회의에 참가 ^하 ^려 ^다 ^그 ^때 ^각 ^상 ^들, ^국 ^장, ^위 ^원 ^장
들이 내각 회의에 ^의 ^무 ^직 ^으 ^로 ^참 ^가 ^했 ^다 ^내 ^각 ^회 ^의 ^에 ^서 ^회 ^담 ^된 ^순 ^제 ^를 ^만 ^날 ^려 ^는
것이 아니라.

내각 회의실이 ^넓 ^고 ^기 ^고 ^창 ^개 ^죽 ^한 ^편 ^이 ^다 ^그 ^날 ^나 ^는 ^죽 ^적 ^대 ^이 ^서 ^그 ^리 ^편 ^의
^앞 ^문 ^지 ^리 ^를 ^찾 ^아 ^했 ^다 ^내 ^가 ^어 ^런 ^문 ^들 ^이 ^참 ^가 ^했 ^는 ^가 ^래 ^서 ^두 ^루 ^두 ^루 ^살 ^고 ^있 ^었 ^다
^있 ^었 ^다 ^그 ^런 ^데 ^내 ^의 ^원 ^편 ^에 ^앉 ^은 ^문 ^이 ^도 ^사 ^정 ^형 ^성 ^리 ^용 ^상 ^이 ^었 ^다 ^나 ^는 ^그 ^문 ^을
이전에도 보았지만 ^그 ^리 ^는 ^너 ^겨 ^보 ^지 ^않 ^았 ^다 ^{오늘} ^에 ^사 ^리 ^용 ^상 ^은 ^환 ^한 ^이 ^보 ^나 ^어 ^가
어렸을 중심여 ^참 ^에 ^서 ^보 ^는 ^것 ^같 ^아 ^그 ^래 ^서 ^우 ^십 ^리 ^리 ^용 ^상 ^을 ^보 ^고 ^있 ^었 ^다. ^내 ^가
큰 ^후 ^회 ^시 ^간 ^에 ^리 ^용 ^상 ^을 ^만 ^나 ^서 ^물 ^어 ^보 ^기 ^로 ^했 ^다.

~~후회~~ ^회 ^시 ^간 ^이 ^리 ^용 ^상 ^을 ^찾 ^아 ^가 ^서 - ^상 ^동 ^지 ^계 ^에 ^어 ^주 ^를 ^말 ^씀 ^이
^있 ^습 ^나 ^라 - ^하 ^나 ^리 ^용 ^상 - ^무 ^슨 ^말 ^씀 ^이 ^오 ^면 ^하 ^시 ^오 - ^하 ^나 ^내 ^가 ^사 ^슴 ^치 ^알 ^고.
- ^상 ^동 ^지 ^계 ^에 ^서 ^소 ^련 ^이 ^가 ^제 ^산 ^일 ^이 ^없 ^습 ^나 ^까 ?" ^라 ^고 ^물 ^었 ^다 ^그 ^리 ^나 -

리용상이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오랜일이요 그것을 왜 갑자기 물어볼까 내가
 상동지 추풍 증심여창이란 분이 기억 되십니까? 하니 리용상이 가만있소 그런
 분이 기억되어 증심여창에 나쁜말 아니라 리중림, 오기침, 허승환 기타 등등
 들이 그 분에 가있으면서 득림은 들은 하소. -한라 그때 상동지 우리집에 가
 게 샀습니까 난 성보란 분이 기억 되십니까? 하니 리용상이 기억 되고 말고 그
 분도 우리와 같이 득림은 들은 하소 -한라. 제가 이따 난 성보의 아들입니다 -
 하니 리용상이 나와 약속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자면 기이한 일은 많지
 이런 좌석에서 현주이아들을 만나라니 참 기이오 우리집에 가서 좀 자세히 이야기
 하게 -한라.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후 리용선생은 여러번 찾아갈까
 리용선생의 신체도 말하겠라

리용선생은 1907년 4월기 화관수도 헤구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서 어른가른 애국 열사 리준의 아들이라 일제가 원동은 침략
 했을 때 희움은과 맞서 싸운 분이라 그런데 김일성이 "사상건조" 란 말이
 재판도 없이 리용선생을 숙형한다 력사는 어느 때나 살아있다 김일성이
 이런 반행이 인간의 심판은 받을 것이 못것이다

오기침 선생도 말하라 내가 그 선생을 만나 30년 전이 선생이 증심창
 우리집에 와 계셨다라 하니 너무나 반갑게 자랑해서 나를 드음하고 우선
 일도 알았다 오기침 선생도 "사상건조" 라기에 똬어지고 말았다

한이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련 대사관 제일 참사 필라도브가
 나를 보러 한라 오셔서 찾아가니 필라도브가 나보고 -동무가 왜 저
 까지 국적을 바꾸지 않고 있소 -한라 내가 -국적을 바꾸는 문제가
 아주 심중한 문제야 좀 생각해 보겠습니까 -하니 필라도브가
 -생각해 볼 것 있소, 동무가 날로 인하자면 공민증을 바꾸어야 하오.
 한라 내가 -나는 소련 공민증은 다른 나라 공민증과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니 저절로 보라 위대한 남일이든 나라 공민증을 바꿀리 고한
 하라 한 말이 있다 물론 북조선 정씨가 반화하고 민주화 될까 보자면
 나도 공민증을 바꾸어가지고 북한 사회 건설이 꿈은 바꿀 수 드 일었다
 그런 데 사실은 김일성이 소련 공민증을 북한 공민증으로 바꾸게 하
 산데서 온 간부들은 천조로 칭찬하자는 것이 10년 전의 희망은 쓰고 태리
 돌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머슴이 바깥에서
 공민증을 교환한다. 이것을 앎은 세치도 못 바라보는 머리식은 일이지
 보라. 공민증은 아를 사함은이 제국에서 일어나 있든가!

이 상에서 말하러 가 보려든 "사상검론"을 마무리하려 할 때
 내게 대한 "사상검론"가 형식적으로는 끝난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사상
 검론"가 안남리에서 진행 될 때 나의 일거일동을 뒤에서 면밀히 살피고
 집현들과 교제하기 점점 어려워질 때 내가 "사상검론"을 말한 것만으로도
 욕을 샀어라 그래서 나를 무시해서 술을 마시라 그렇게 친하게 일하러
 부장들까지도 나와 만나고 싶은 사람 같아 이것이 내가 "사상검론"을 말하러
 그때 불쌍히 무시하라 어떤 끝까지 속까지 과연 얻을 수 있겠
 든가! 그리고 또 내가 "사상검론"의 신세를 후후히 입었다 신정회약인지,
 무엇인지 하는 1명이 걸고 속임수와 수완증이 심해서 도저히 일할 수 없었
 겠다 1명일에서 체면을 알았으나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1958년 5월 초에, 내가 1명이 나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나를 소련으로
 보내 라라 내각 사무국이 청원을 보라 한 일은 중앙까지 1악 근원이
 나를 부르라 1악 근원이 나 보고 - 왜 소련으로 가라 하라 가라고 누가
 일러주노, 모스크바에 체류하려 보내 주겠소 - 한다 나는 사실 소련에
 화 해표를 알지 모르나 나는 후후히 아라거니와 일할 환경이 못 해서
 소련에 갈 것은 결심했다 (5월 초에 나의 청원이 접수 됐다 사실 나는
 기이였다 그러나 차이를 보라 남들은 소련에 돌아올 때 가양병 여객
 가져와 왔라 하지만 내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내가 소련으로 갈 때는 소련은
 듣고 나와 아주 친한 천주 김광이 나를 찾아 왔라 그때 김광이 무역성
 부장이었다 김광이 나 보고 - 이 청원 잘 해나, 일하러 왔다가
 어떻게 좀 도와 갈라 말이나, 끝을 몰아내라 ~~한~~ 라라 - 한다 그래서 내가
 - 이제 보내 내가 과연 출을 한 것도 못 보는 안습한 사람이구나 우리 우리
 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있는 것은 내가 못 보느냐, 불장은 다 봤라 살고
 싶으면 글라라를 싸라 - 하니 김광이 - 좀 완화해 지겠지 - 한다
 내가 - 천주 천주의 충고를 듣는다 안습하면 후회할 때가 있는 거라 -
 했다. 서로 갈라진 이후 김광의 소식을 알아 볼라 했으나 알지 못
 겠다 말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형이상물론이 태라 한다

어느 날 저녁에 최철환이 전화를 걸라 그때 최철환이 내각
 사무국장이었다 그의 집을 해방산 밑에 있었다 우리 집에서 멀리
 았라 내가 최철환을 찾아갔자 최철환이 흔쾌했다. ~~최철환의~~
~~최철환의~~ ~~말을~~ ~~쓰려~~ ~~는~~ ~~로~~ ~~마~~ ~~주~~ ~~보~~ ~~았~~ ~~다~~.

내가 - 나는 가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좋겠소 - 하니

사건이 없소

김창만 나보고 - 무슨 일이 왔소 어서 말하오 - 한라 그래서 내가 라도적임
 께 직임 직으로 - 부장 동지, 저와 아무힘이 없이 망동함 창간을 즉림즉정에 먼저
 죽었습시다. 이렇게 하고서야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어찌 일할 수 있겠습시다.
 부장 동지의 지시를 취소해 주십시오 - 하니 김창만이 - 나든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소 - 한라 내가 - 예 알았습시다 아나 하부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 말 같습시다
 하고 부장실에서 나왔다. 그후 망동함 창간이 저 자리에서 일하게 됐다
 김창만은 큰 관료주의라다 웃사람에게는 아무하고 하부사람을 멸시한다
 그대 내가 속으로, 저런 관료주의라가 어찌랄 중앙당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하길 당관부들이나 관료라.

내가 떠나기 전 이틀 전에 최종학이 무한히 전화를 걸라 1에라를 데리고
 제혁이 자기 집으로 모셔와 한라, 최종학은 내가 어려서 무리하는 권구라 소학교
 에서 같이 공부했다 최종학은 싸움이 무뎠고 동지격애가 깊고 견솔하고
 말이 무겁고 책임성이 강한 사람이라 소일전쟁의 첫 날 무려 2천여 양전에
 참가한 한 사람이다.

제혁이 1에라와 같이 최종학의 집을 갔다. 짐에는 두루마리 뽕이고 아이들은
 어디론가 간 모양이다. 종용하다. 내가 종학을 보고 - 우리 와서 좋겠네, 반성이
 없겠나 - 하니 종학이 - 걱정할 것 없라 이제는 나는 다 될 사람이라, 짐을
 건 없라 - 한라. 내가 - 그래도 너는 여기서 일할 사람 아니니, 죽이려 해야
 하지, 내^가 집으로 들어올 때 내 뒤를 살피는가 해서 살려뵈었다. 살피는
 눈이 없더라 - 했라 종학이 - 하긴 우리 집을 살피라.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불안스럽다. 사람이 이런 목마전 속에서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나. 이만 리 죽어
 하지 한라 - 그래서 내가 종학을 데안 하면서 살아야 한라 마르잠힐
 날이 올 것이다.

종학이 나보고 - 그대 어느날 떠나느냐? - 하리 뵈는다. 그래서 내가 - 모레
 떠나리 - 했라 그날 저녁에 종학이 "상상 집호" 말한 설문이야기를 한라
 종학이 자기 이야기처럼 이런 말로 시작한다. 너도 이미 알고 있을게라 말 말만
 한가지 반 반하리. "상상 집호"의 첫 날이다 중앙당 회의실에서 군관
 회의가 열렸라 비회의에 약 300명 군관이 참가했다 즉석 관이든
 김일성, 최용건, 김창만 기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회의의장이,
 나보고 사업 보고를 하라라 한라 나는 이런 것을 알고 보고를 준비했다
 내가 어떤 말에 내가 보고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최용건이 한 군관을
 불러 명령한다 저놈 (나를 뵈이키라 한라)의 견장을 데리라라

그러자 대위 한 사람이 열은 칼로 두어 나에게서 사정없이 전장은 활활
 잦아 켜라 최용진이 옥력으로 상을 치면서 또 제복은 강장 벗으라 명령
 한라 내가 제복은 벗고 장승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이야 말로 살상
 의뢰라 이렇게 까지 옥지 딱지 관 행동은 안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했다 김 일성은 이 장면은 문연사아주 만족한듯이 허락이 모든다 최용진이
 노모로 주먹같이서 강장 물러가라 명령한라

나는 이끼로 총침체국잔이다 대장이다 최고 원년살임이연회가 이대장의
 군사 칭호를 정령으로 수여해보라 그러므로 최고상임이연회 지이느라 듣어찌한
 사람도 나의 군사 칭호를 막할할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용진은
 정령을 짓않고 제마음대로 나의 군사 칭호를 관관히이서 '막할'보라
 이런 무엄한지가 또 어찌될게는가 천안공로할일이라 이자르지는일이
 없다 자기이들이 거스리는사람은 따지 잠 죽한라 이런 사령지 듣어 오래
 까지 못 할것이다 정령은 어느때나 수여하는일이야 내가 죽음볼것이라
 너무나 원흉이라 격문해서 너와하는말이다 여기에는 현이 들고 맏한
 사람이 없다 나를 제살 풀고 구명만 파르일라

제복이 벗었다 총학이와 포음리르 한참들었다 하직인사들하리 힘이
 됐다 든든나기 최동학이 이런소통과 현대를 말고 명에 질터세상을
 그러났라 관라

5월 21일에 내가간다고 방송이연회에서 송연연은 차려라 송연연이
 중앙강선전북관 리 일정이 참석했다 리 일정이 전설인귀는 알수없으나
 내게 맡은 찬수를 언짢다 나로 간관한라 관라 관라 나도 이 연회식이
 이런 생을 할라 "수상점"에서 나를 1만동으로 불러가 내가 간다
 하나 송연연은 차리다나 단 무슨 희극은 꾸미지나 안는가 해서 조마
 조마했다"

1958년 6월 1일에 내가 식수를 데리르 평양역에 나왔나 나를 전송하는
 사람은 연로 없었나 면 1명에서 안전원들이 누가 나를 전송하는가 살타
 있었다 이런판에 누가 나를 전송할수 있겠는가 내가 한 기차가 서평양
 역에 와 았다 나의 목장들이 나를자 데우려 오았다 내 손은 잡고오는
 사람으로 있었다 직원 몇 명이 걸을로 못 오고 연 10명에서 손만내 흔들라
 기차가 현소리 그러난라 아래로 내려 나왔나 사람들은 기차가 살아질 2회
 까지 울수편을 비틀라

"도망망이여 잘있거라, 한때 해방자의 만세를 불어 외치던 때가 왜 오늘은 이렇게 우울하리 냉정하냐" 나는 그때 말하는 차창을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잠겼다 어느새 차가 신의주역이와 랑완라 세관이시승객들의 집을 걸려한다 내 차례다. 한 세관이 나를 보고 - 티엔량 동지 아나심니까? 왜 아리가심니까 - 한다 내가 - 뭉이 명이나서 가오 - 했다. 한 세관이 나 보고 선생님의 집이여것임니까. 2저 흥과 하심서오 - 한다 - 내가 그 세관을 보고 - 감사하오 - 하고 즐만한 선물이없고 해서 함수한 명을 그 세관에게 주니 감사히 갈는다 세관사람들이 도련안이 가리고 인사한다 차가 압록강 철교를 천천히 넘어 중국량에 들어선다 내 한 련화가 만주의 쓸쓸한 황야를 갈나라가 르리어 치리아라 ^관활라 소련량이다 시련이 확 놓인다. 몇일후이 련화가 모스크와에 들어선다.

김 이노 췌찌 리하이노야츠, 조동주, 우샤도브(모스크와 외곽에 만송국 주필)이라 동북들이 나를 맞이한다 김 이. 리. 가 숙락을 자기 집으로 안내한다. 이노췌찌는 ~~주필~~ ~~이~~ ~~가~~ ~~서~~ ~~서~~ ~~로~~ ~~친~~ ~~하게~~ ~~산~~ ~~사람~~이다 이 집에서 거이 할랄이나 살았다.

모스크와에 못지 산을방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동양무부장 잠시나 나를 만나자고 한다. 약속한 시간이 중앙 ^관위원회에 가니 열서 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나를 무장실로 안내한다 무장실에 들어서니 잠시나 부장이 일어나서 나와 약속한다 과리가 왔으라고 한다 잠시나 하고 - 건강이여 련소? 하고 물으니 내가 - 건강이 그럭저럭 좋함이라 알습기라 - 한다 식물이 많소 하니 - 바가 ^관여섯 심는다. - 머리로 가겠소? 나는 원동에서 자란 사람임이라, 하이야스키에 볼 내극 심서오 - 했다 잠시나 이쁜제련을 수침이 적는다. 잠시나 내게 물은 내지밖 논제를 2레르 뿌려준다 잠시나 나보고 - 동북은 김일성이 여련 안들이라니 모오 - 한다 그때 내가, 중앙량 동양 무장이 김일성이 누굴지 몰라서 나와 물은수 없다 이것은 나의 속성을 러보려는 수작이라 좀 불쾌 했다. 그러나 저러나 중앙량 무장 라 시미를 캐릴 드는 없다 그래서 내가 몇생각없이 따짜고 짜로 - 김일성은 흥포 한 득재자임이라 - 라니. 잠시나 눈이 뜨고 래서 - 동북 2계 무슨 소리오 - 한다. 내가 - 무장 동지 나보고 나의 견해를 말하라고 하니 내 견해를 말 했느레 2리 놀랄 것 ~~있~~ 습니까 - 라니 잠시나 - 말을 좀 투위하시오 - 한다 랑화가 끝났라 잠시나 조이려찌를 썩 ~~내~~ ~~게~~ ~~주~~ ~~련~~ ~~서~~ ~~이~~ ~~적~~ ~~짜~~ ~~르~~ ~~가~~ ~~자~~ ~~르~~ 중앙량 1명원에게 가서 치르하라 한다 그리고 4000 ^{또 장비를 여러 가지} 루브리 ~~전~~ ~~표~~ ~~를~~

말았소 의사들이 나를 러운지대로 가지 말라고 권유함만 오고 끝이요 사정이
허락치 않소. "극성 켈호르"에 가왔을 때 어머니 분와 이삼누우 수라디르를
찾아가서 꼭 찾이 술한과식 무어 좋았나 어머니의 드 알에서 삼재 달반을 다
점으신 어머니의 일생을 회상하되라.

얼제 해동안이 십년이던 감산이 면한다고 켈호르의 면보가 몹시 번
했 다 전이 없던 러관, 레스노관, 전화국, 전화국, 영원, 막불관, 현대적
기제수리소가 열려있나, 이 조합에서 30여명이 갈라는 로릭 영웅들이
일타 일타 러객 이어쓰가 켈호르를 꾸일류크를 왕 리하인 워다 이 켈호르
공화국에서 이름난 켈호르라 외국 손님들이 이 조합으로 자주 찾아올라

내가 "극성 켈호르"에 가 있는 동안 김영화 사행을 자주 방문하되라.
내가 한 번을, 김영화의 짐이 가서 점심은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되라.
다른 켈호르 회장들은 아주 어전이 사는데 왜 이렇게 구차이 사오
하니 영화가 내가 왜 구차이 사라 말이오 먹고 임은 건이 안소, 잘 사는 켈호르
회장이라 도둑놈들이오. 켈호르 회장도 열등은 말은 사오 2월음을
말아가지런 서이 어찌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안소.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오 한다.

켈호르 집행부 위원들과 나의 동무들이 저녁을 차려다 저녁식사에 한
30여명 가량 모였는데 식사가 참말 만만진수다. 김영화가 저녁을
먹으면서 나와 이런 말을 한다. 분식이, 이 저녁을 차리는 켈호르
들은 한 푼도 안 들었소 동무들이 도와 차린 것이오. 양도 다른 켈호르에 가
사왔소 그러가 켈호르들이 켈호르 양이 되고 할가봐, 그러나 어려워
하지 말고 말이 자시오 한다 나도 간간한 감사를 하되라 일이야말로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서 반감소. 이분들도 몇장을 동무들이 옛 정을
만 잊은 것이 더욱 반감소. ~~부족적~~ 이런에와 보니 켈호르 말은 반전을
했소. 이것은 이 좌석이 앉은 1 영화를 비롯 한 여러 동무들의 지혜와 정력과
켈호르 언어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본오~~. 늘상 건강함으로
말하러 ~~말하러~~ 하시오. 켈호르 전성에서 많은 사랑을 받기위하오.

내가 켈호르 러나는 날 저녁에 1 영화와 다른 많은 동무들이 여행한
까지 나를 전송 했다. 모스크마에 와서. 해아름스크 해외 1 방송국에
가 일하라는 중앙관 소개서를 가지러 8월 15일이 모스크마를 러나
해아름스크에 왔다 이 때 해아름스크 해외 1 방송국에서 나의 친구
등 상훈이 일하되라. 물시에 다른 러우 갈리 없고 해서 등 상훈 린에서

살았다 불쌍한 짐이 너무 메우고 식물이 많이 나오라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병동국 회의실의 한 구석을 찾아서 살았다 일터가 아니라 후퇴시
 식물들이 심한 고생을 했다 내가 하이툼스크로 볼 때 잠시 주책들이
 다 해결 됐는데 걱정 말고 가라 든 것이 한 달이 돼도 아무 말 없었다 그래서
 잠시 나에게 진화를 걸었다. 잠시이,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1면강강에서
 에게 지시를 주었는게 한라. 이런 감화가 있을 이후 사흘 만에 1면강강에서
 흐르기가 나를 모라라 한라 익숙한 시간이 흐르기를 만났다. 흐르기가
 - 내가 동주의 주책 문제를 시중히 해결하라고 시소메트 위원장 뵈르가예브
 에 ~~에게~~ 맡겼으니 거기가 보오-한라 그래서 뵈르가예브를 찾아가서
 나를 시소메트 부위원장 꼬루슈도브를 만나라 한라. 나는 그때 알은
 사람이었다. 관료주의가 시작 되는구나 하고 끝이 사나웠다 자르칠 힘이
 이간대라 할 수 없는 열이다. 시소메트 위원장의 지시 대로 부위원장 꼬루슈도브를
 찾아 갔다 말을 온몸들이 차례로 서 있다. 나는 모르 척 하고 차티 없이 꼬루슈도브
 카메네트로 들어갔다. 꼬루슈도브라는 사람은, 이른 보아도 생김새가 관료주의
 자라. 나를 보는 척 바-척 한라 언사도 없고 앞으라는 말도 안 한라. 꼬루슈도브가
 나보고 꼬리도 끌도없이 - 일런 데루 ~~호~~ 안 가고 돼 하이툼스크로 왔소-하
 아니 끄끼 말 한라 아까 이 사람이 ^{나를} 데리서 줄러 문 이주인으로 알고 있는 모양
 이다. 내가 - 하이툼스크로 가라라 하나 왔소-하고 불쾌하게 대답했다
 꼬루슈도브가 - 지금 하이툼스크가 주책 반을 점근 일소. - 한라 그래서
 내가 - 좋소. 내가 불쾌했던 곳으로 가겠소. 여기서 주책이 없다는 글감을
~~내게~~ ~~주~~ 주오- 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삼부대 지시를 만 ~~수~~ 를 나는 안라
 앞날 관료주의를 무려도 결국 내게 주책을 주어야 할 것이라"
 내가 한참 있다가 - 돼 글을 독스킬소. 감성이 큰 관료지라오. 나는
 이주인이 아니오 준양 강 소개로 이시로 왔소"하러 일어나 나 불려라 하니
 꼬루슈도브가 - 좀 왔으시오. 그렇게 성 번질 일소. 내가 립시로 짐을
 열겠으니 가겠소 한라. 내가 이시로 볼 때 모스크바 동쪽들이 봉식이
 하이툼스크로 가지 런 립시로 주는 주책이 든지 하오 말이 립시리 든던 그 말이
 하 런 말이 생각 된다 그래서 내가 꼬루슈도브를 보고 나는 립시
 주책으로 갈 생각이 없소 하니 꼬루슈도브가 그러던 줄기라 리시오
 한라. 이런 말이 있을 이후 볼른 만에 시 주책 관리국 국장이 나를 모라
 한라 그가 나보고 - 새 주책이 있소, 좀 머오 - 한라 내가 - 그것은
 관계 없소 주책이 밖에서 든던 가질 소-하니 국장이 - 그러면

지금가 보게요 - 한라 되서보니 새로 전설한 주책이라 마음이 들었라
 인차 이사했라 이사는 했으나 가구가 전혀 없었단다 돈이 없어서 책가구를
 살 형편이 ^{없었다} 아니다. 그래서 양송죽 채임자 받고 내서성은 말하니 립사로
 가구를 빌려준다 여제는 짐도 있고 가구도 있고 하니 생활문제가 해결된
 셈이라 식구들을 녀려 살려야 하겠으나 까 일은 해야 했다 그런데 몸이
 그날 아프라 신정외약 때문에 뭉과 손이 떨리고 ^땀 불면증이 심하고 기억
 령이 없다 식기도 없었라 그때 나는 아바 내가 죽는다 했다. 할수 없이
 의사를 찾아 갔다. 의사가 나를 오래 진단하더니 - 당신께 큰 병은
 없소. 영양부족이요. 그러니까 손이 떨리고 잠이안 오고, 영양가치를 들이
 어야 하오. 광분간 정신로동을 하지 마오. 만병흥취 약은 없는 병이오. 건강이
 강신 자선에 갈려오 하면서 전신 링수마찰을 하라는데 것이다. 의사가
 지시한 약을 마시는 한편 링수마찰을 시작 했다. 하루 10마 진 없이 아침
 일찍이 링수마찰을 한달 동안 계속 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라 우선
 손이 떨 리고 식이가 돌아서고 기억력도 나사 된다. 링수마찰을 계속 했다
 하긴 지금까지도 하루 링수마찰을 한라 건강이 점차적으로 회복 된다
 한직원이 나보고 - 우리는 20년 전생의 사냥병이 휘림하리라 녀려
 보았습니다 - 한라. 이것은 사실이다. 사냥검호의 "주책"을 혹독이
 읽었라 죽다가 살아났다. 낙심 말고 1명과 꼭같이 싸우라던 10명을
 이겨 낼 수 있다 라는것은 나는 알고 있다.

히카류스크 양송죽이서 거이 열라 싶 해 나 알했라 이듬안이 고정된,
 주필로 있느면서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다. 라 그런것은 아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단다. 몇가지 실패를 들었라 조선1만에서 장길성
 이라든 1번역원이 일 했다 푸름이 아바 나쁜 사람이라 번역을 하라 가도
 자기 번역술이 ^{아바 나쁜 사람이고} ~~아바 나쁜 사람이고~~ ^{일생가화} 개생기 (필자를 포함) 라던 원고를
 활자 찍어서 수지흥이 짚어 건진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1만수자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말하느 사람이 없다 하루는 장길성이 번역을 하라가
 람 개생기하던 원고를 찍 찍어서 수지흥이 쓰여 넣는다 내가 참지 못해서
 장길성을 보고 - 이것이 첫 1번이라던 몰라도 1번이 원고를 찍어 버리면서
 필자를 개생기나 하여나 하고 꼭 짚하오 그게 여리서 매운 해사오, 감신은
 이상도 모르오 - 하니 장길성이 한참 말없이 있다가 - 내 잘 못 했습나
 앞으로는 어떤 일이 없겠습나 - 한라 어떤 일이 있자 냐는 후에
 을 상흥 (우리는 서로 선생 이라고 부른다) 이 나보고 - 선생이 일운까지

라지마가 차츰 차츰 1억 원이 되었다 품향도 많이 말았다 혼자 살기 너무나
 적으해서 러시아 녀성과 동거했다 러시아 녀성에게 연락하나가 있었던
 는데 라지마가 천안처럼 거두어 주는 사랑했다 라지마는 유학정기서 멀리
 알지 살았다 그래서 천한 친구가 되었다 서로 만나 없다. 라지마도 년금 생활은
 나았다 라지마가 돈도 있었다 그러나 심으해서 채소질도 했다 라지마가
 하루를 만난 적 마다 나도 채소 동사를 약한은 권고한다. 내가 브라그웨이 센터
 에서 사는 말야 등짐에 갖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라지마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라지마 집을 찾아가서 일원중이라고 한다 한 달이 지나도 ~~찾아~~ 없다.
 라지마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지금도 회한 안 노양이다 한다 그런데 우연히
 일본만 나까야마 ^마를 길에서 만났다 내가 그와 라지마의 소식을 나누어 주고
 물어 보니 나까야마가, 왜 선생이 모르시오. 라지마가 1억 원이서 죽었소.
 라지마 양말이 시체를 안 찾아가서 시체 안치실에서 주임 없는 시체라고
 어디라 함정 해 버렸다고 한다. 나는 나까야마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놀랐다. 라지마 생전에 자기의 양말을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여럿이 자기
 양말이 시체도 안 찾아가는가 세상에 허한 사람도 있구나. 이분도 일본만
 책임자가 라지마가 년금 생활은 나간 후이 그가 여럿게 사는가 하고 알아
 볼적도 없고 1억 원이 엄청난 돈으로 알면서도 일본만 아는 한 사람으로 1억 원은
 만을 하지 않았다 이어서 독한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하긴 내가 1억 원
 년금 생활로 나쁘지 25년이 되었다 그러나 누구하나 나의 것 같은 생애를 물어
 보는 사람이 없다 하긴 내가 조선만 사람들과 그들이 직원을 파자구 만나
 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일년에 몇 권씩 볼로즘도 보낸다 꿈이 많이
 된 것 같다 라지마 ^{사람이} 이렇게 미참하게 됐다. 라지마의 양말은 리 말할 것
 없거니와 외국어 방음국 총독 될의 여인간 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는 3년 동안 러일하라가 1973년도에 열에서 완전히 나왔다. 사람이
 직업 없이 살자고 보니 마음이 형편 같아 안절무절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란 아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것 같다.

1983년 7월이 나의 처우라가 사망했다 이것은 내게 큰 타격이다. 그때
 나는 세째 아들과 살았다 재금으로 세째 딸과와 산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나는 이 두 손자를 사랑한다 그들을 빌고 산다 나의 친구들이 나보고
 아직 그리 하지 않았는데 말은 무슨 할 사람은 이르라고 한다. 그러나 친구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지금 시대는 황금 시대라고 말한 수 있다 동이 사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본다 내게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은
 누가 거두어 줄 사람이 있겠는가, 조살아 감각형은 없다 내게는 세 아들과

딸이 있라 죽으면 나를 파묻어 줄 사람들이 있라 아전 때들이 큰심할 것 없라

1984년 봄에 소풍도 할 겸 따스케트로 갔다 이 도시에 나의 딸과 친구들이 산다. 어느 날 저녁에 황성복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나를 청한다 (황성복은 대일원 초시기 부러 나와 같이 조선해안전에 참가했고 전후 평양에서 야구가 짝끼지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찾아 갔다 집에 들어가니 다른 사람은 없고 주인 혼자 뿐이다 그런데 딱 오래 있도록 저녁상이 안들어 온다 그래서 내가 주인 보고 - 누구를 기다리오 - 하니 주인이 - 지금 리상조 선생님이 이 도시에 와 안소 그분을 기다리오 - 한다. 내가 속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저녁을 차릴 것이 아니라 리상조를 위해서 저녁을 차려주라" 하고 생각 느꼈다. 한참 안오라니 리상조가 자기 처와 같이 들어 왔라 주인이 일어나서 리상조 그의 처를 아주 반갑게 인사한다. 나도 리상조 부처를 인사느꼈다 다 감상이 들어왔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간담이 있었라 간담의 내용은, 당신이 더 잘 알겠소 내가 더 잘 알리 이런론도로, 전대기들의 김일성 개인독재, 언변 북한인민의 생활관, 사상검토, 김일성의 '양방향 사생활', 북한에서의 인권 및 자유, 경제 기하문제 등가지고 리상조와 황성복이 경쟁적으로 말했라. 그런데 김일성은 비틀고 어만한 사람이 자기 한 말을 다 기억고, 아소크지 목인인지 한것은 꾸며 내가지고 북한을 넘나들면서 군사칭호를 말는 다 신분을 말는 다 하면서 김일성은 하나님 같이 떠 말든 있었다. 왜 그렇게 갈팡 질팡하는가, 어찌 할 작정인가!, 세상 사람의 눈은 뭐 다 누가 누구인지 똑똑히 살펴보고 있다.

"극성조 함이 내 녀동생이 살고 있라 어느날 녀동생도 반날점 동우들은 대할 겸 어조함을 찾아 갔라 끝으로 짐행무 건물앞에 다달으니 고려사람들 하나도 없고 우리에코 등간사람들이 왔라 갔라 한다. 내가 26년 전에 이 끝으로 왔라 갔다. 그 때만해도 이마강에서 고려사람들이 웅성거리 벗고 많은 나의 친구들이 나를 1만가이 맞이 하지 않았는가! 갈말을 목도로 말든 사람들이든다 여리로 가고 우리에코를 ^{과연} 뿐인가! 사람들이 이지역은 개척 했단 말인가! 나는 개척자들의 한사람이다 그릴 때 이 무인지역은 개 말하느라고 우리 고려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었는가 를 잘 알고 있라.

아중영웅 김일화가 극성 끝으로 이 어떤 장소로 일은 때 구역강에서 강이서를 우리에코를 시키라고 김일화에게 내리 뱉혔라 그러나 김일화는 내가 우리에코 말을 모르는데 어리걸게 우리에코를 강이서로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 하근 저절로났라 그러던 것이 김일화가

사망 이후 쾰호르츠위원장이 우리에코고 강이셔도 우리에코가 지어는 무기장
 까지도 우리에코라 말하자면 "극성 쾰호르츠"가 완전히 우리에코화 될라
 판이 이럴게 되자 이 쾰호르츠를 건설한 선전일꾼들이 하나 들씩 쾰호르츠를 떠났고
 고려인 호수가 거의 300여 호였는데 지금은 30호를 넘지 못한다 하긴 "극성
 쾰호르츠" 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 쾰호르츠들도 우리에코화 되고 말았다.
 설마 이렇게 일 될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말로 생각해 볼만한 화제
 처리다.

1939년에 (해수가 짙스 치얕다) 디스켄트 문화 건설이 시작 될라 이 문화
 건설이 고려 쾰호르츠들이 흥동원 됐다 "극성 쾰호르츠"도 이 건설에 참가 될라
 나도 거기 가서 땀도 뀐고 문화사업도 했다 그때 나는 만 한가지 습관을
 사실을 말하곤 했다. 이 건설장에서 고려사람들이 족제끼를 지고 흙을 날라
 로력능률을 우리에코를 보란 게나 늘었다 그것도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라수로 우리에코들이 논채를 가지고 흙을 날랐나 논채는 특사함의 것이야
 할라 특사함이 나르니 흙은 족제끼를 한사람이 논채 했다. 그러나
 한사람이 특사함의 특을 감감할 심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들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나 "우리에코가 족제끼를 말려 줄라 수
 많은 건설일꾼들이 ^{기사함의} 족제끼를 지고 흙을 운반 하여 건설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말려한 공들이 크라 이것이야말로 국가상은 말은 만
 할 공적이다" 소가 온다가 꾸러미 허질 드루이다. 나의 것은 억지로
 이렇게 매 냐는 수 없겠는가 하기는 고려사람들이 쾰호르츠를 떠나가기
 었는데 족제끼 짬야 말할 나위 없겠는가!

이상이서 쾰호르츠와 같이 "극성 쾰호르츠"가 완전히 우리에코손에 넘어가자
 나더 옛친구들이 라 지방으로 일사 했거나 사방 들라 쾰호르츠에 오러
 있을 자기가 없어서 갈림으로 왔다. 몇일간 더 디스켄트에서
 놀라가 하야루스크로 돌아 왔다.

1983년 6월에 김 바르웨이 재보페에이츠 - 소련 년급생,
 황 동세 - 소련 년급생, 남 봉식 - 소련 년급생, 리 훈일 - 소련 년급생,
 강 상호 - 공화국 년급생, 서 재욱 - 공화국 년급생, 김 세일 작가
 이상 일곱 동무들이, 리 동희의 기념 이름 그다가 족들이 사는 우리전치,
 우리에코 공화국 이 건립 할 것과 중앙 아세아의 어느 학교를 리 동희의
 이름으로 부르길 것과, 까르노스관 코질 - 오르다에 있는 홍 1번도의 문앞에
 기념 이름 세울 것과 이 서의 어느 학교와 소년관을 홍 1번도 이름으로
 부르러 코질 - 오르다 박물관이 홍 1번도의 혁명 사업에 관한 극작을 설치

해갈라는 청원서를 섯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에 제출한바있다 그후 서기국의 회답을 받았라 그회답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 동북들의 말기를 찬동한다 그러나 중앙당이 자금이 없다 그러나 동북들의 힘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는 그때 이런 회답을 받고 기분이 상했다 중앙당이 즉 혁명가의 기념비를 건립할 돈이 없겠는가 이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공적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중앙당이 청원을 쓰려라 하다가 툭포기 하고 말았다.

나는 조선민주통일 주국전선위원의 한 사람이다. 1993년 10월에 위성촌에서 열린 주국전선 대회와 서울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를 들 국제적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더욱 대회에 대해 쓸 것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관공제라 이를 생략한다

내가 살고 있는 하마르스크 시에 대해 잠간 언급하려한다 나는 이 도시의 명맥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 도시가 점차적으로 국제도시로 전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한다 지금 이 도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 있다. 구소련의 공화국들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외국인들의 직업은 다양하다 주로 상인들이라 대학 교수, 목사,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하마르스크 시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들을 좀 대담해 보려한다.

이 시에 립업 재포부가 있다 재포부의 인원수는 약 40명 추산된다. 한 일년 전만해도 수랭과 강을 찬양하는 구호들이 재포건설 1억들이 나뉘어 있었는 데 지금은 볼 수 없다. 재포부는 안전부도 있다 안전원들을 립산사업소에서 도망친 자기사람들을 낚잡느라고 증명하라 이에 대한 재포적인 실례를 이 뒤에 말하려한다 보라리 장수'들은 도 깨닫다 내관 큰 관심을 가지고 이보라리 장수'들과 말해 볼 일이 된다. 내관이 - 장수들은 1억부공일레 1억부은 안하리 왜 되넘기 장수'를 하리 있소. 장수들이 책임자이 허가를 얻고 이런 장수'를 하오-하니 그사람들 말이 -우리를 좋아서 이런 수치스러운 되넘기 장수'를 하겠습니까. 먹고살아야 하겠느냐까 하는 일임니까 우리 책임자들은 보느척 막는척하리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뿐이나 생기기 되느라 전만들 그들에게 주어야 함니까.-한다.

이보라리 장수'들 외에 립산사업소에 활동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을 활동자'들이라 한다. 이들을 이 시에 와서 숨겨 산다. 대개라 30살 되는 젊은사람들이라 그들의 식솔들이 북한에 있다 활동자'들의 말이

기타 어떤 러시아도 많이 남은 활출자들의 식솔들은 모팔계를 안 말고 무환 남한
 으로 도주한 사람들의 식솔들을 정예를 보내거나 재판에 한라라 한다 그래서
 어떤 활출자들은 러시아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활출자들의 생활이 아주
 곤난하다. 신물증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 나라갈 등 하는 사람들이 그 큰
 도와 주고 있다. 어떤 흑사들도 그 큰 등고 있다 늘산 아닐 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활출자들이 기본 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시 상기상조라

대표부 안전원들이 활출자들을 못잡으라 끊임없이 밀라는 실례를
 들자고 이상이 많았는 데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10월 10일에 체르노볼스까지 거리의 약 85호 주책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집이 활출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 그러나 9월
 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대표부들이 이 이름을 알고 이 날
 아침 여섯시에 여덟 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85호 주책은 포위한다.
 안전원 세 사람이 활출자가 사는 방에 뛰어든다. 안전원 한 명이 활출
 자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활출자에게 걸리어 든다. 이 순간 활출자가
 자기 절이 있는 식으로 눈싸게 유금을 쥘고 환복을 말길로 차고 몸을 ^몸 ₁₀
 뺐다 하기는 활출자도 칼이 정상을 잃었다. 피를 흘리면서 갈아 날다.
 생년은 구원했다 이 활출자는 목한이 남은 때 류일부대에서 거기
 심년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용병으로 대담한 사람이라 못잡아려
 왔던 대표부들이 정안이 없는 물건만 탐량 질이 가져온 돌아
 갔다. 이후 대표부 안전원들이 - 그들의 (활출자) 주소를 대주는 사람에게
 3월 불이 상급을 주겠다는 수포를 던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원
 두 사람을 칼로 쥘고 돌아온 활출자를 못잡고 있다. 앞으로 도둑 잡은
 것이다. 그 사람이 안전한 곳에 가 있다.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봄이면서 대표부들이 85호 집의
 물건들을 훔쳐간 사실은 이집주인이 재판에 회부했다 앞으론 재판이
 있을 것이다 대표부들이 망신은 흑흑히 하리라고 본다.

나는 이사를 찾아오는 한국기자, 일본기자를 종종 만난다. 그들이라 활출자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활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체르노볼에 와 있는 북한 김일성공주의 생활
 형편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도 있다. 지난해 7월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 체르노볼 책임자
 랑에서)가 김일성이 제사를 지내길라라 무하 한 사람을 제물로 하바류스로

보냈다 이 사람이 이 시에 와서 옥류, 여류 각각 두 권로씩, 식물성기름, 술, 채소
 기린 식료품을 사가지고 어느 한집에서 류숙 했다 그 때 마침 이집이 한국사람이
 있었라 두 사람이 다 같은 조선사람이라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다
 이후에 당이사가 자기가 제물사려보낸 사람이 한국사람을 만난라 그래서
 그에게 그를 조국 (북한사람들은 조국이란 말을 잘 쓴다)으로 축출한 사실이 알려
 북한사람이 한국사람을 만난 것이 죄가 된다면 흥일은 어떻게 한라는 불변가
 북한에서 지른 죄들과 있는 흥일만도 흥일을 만만공무원이다.

원동기 체제도 산림속이 ^불모르는 노예제도라고 했으면 좋은 년지, 불건
 제도라고 했으면 좋은 년지 모든 제도가 의절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과장이
 아니라 그 비용을 따져보면 그것이 사실이다 북한처럼 인간 치열이 심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은 것이다. 이제 몇가지 그 실태를 들여 볼기로 하자. 체제 구분기서는
 상부 (상전)와 하부 (노예) 사이에 쓰는 특구한 말이 있다. 즉 상부가 하부를
 대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문 저문이라고 안하고, 이놈아, 저놈아,
 여자식, 저자식, 지어는 이 색끼, 저 색끼 등 만 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년령은 관계 없다 상부 사람은 하부년 너리가 흰사람에게도 이런
 말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이 노예사회나 불건 사회가 아니란 말인가,
 식사치열이 대해서도 말 할 여지도 없다, 여기에는 감옥이 있다 당이서나
 안전원이 자기 이의에 저를 리는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 넣는다 그 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짐내외 썰렁한 말만 다 눈심이 망물 노예가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 한다. 사람을 훔친 대신에 나무를 1리다가 죽은라 조국이
 불고 할라. 벌목장이 도플이나 러'일 자리가 있 리고 할라 어떤 자리에
 취직 하자면 책임 자에게 뇌물은 넘어야 할라. 상부가 위협하 라고
 보는 사람은 생라리에 김스뽕 때를 치는 조국으로 추방할라. 체제도는데
 만여명 립업공들이 와 있다 그런데 목욕탕은 하나도 없다 이 (북)가
 너무나 그래서 저들이 면 립업공들이 내복은 벗어서 이가 죽으리란 말
 라 할라. 김일성은 지상낙원을 꾸민라 했라 이것도 지상 낙원인가.
 한바디로 말해서 북한 고위층이 말로로 인간을 위해서 일한라 고 하리
 관 사실은 사람을 모욕하리 면서한다. 체제도는 지도층은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많고로 새나갈 기야 문갖 근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출범이
 금지 돼 있다 어느 려가 특알스미엔 잠리 기사가 체제도는데 가서
 사진 촬영을 시도라다가 깨른 낫고 사진기를 매맞기 사실이 일었다
 최근에 들을네 체제도는 립업공들이 폭동을 이르킬 위험이 일리
 해서 임의 있던 립업공들은 대공적으로 조국으로 보내고 가장 신통원은

림업공들을 끄쳐 하라고 한다 현재 여기에 와 있는 림업공들이 다 강의
 심사를 받고 온 사람들도 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활출자들이 있었다
 이월이 끄쳐하는 사람들도 활출자가 있었더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양식으로는 부정 사건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 생활수준과
 임금을 붙이며, 인권을 존중하며, 위생시설 등 이런 원칙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지 않고 호령, 명령, 공갈, 억압으로서는 사회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내가 "로년에 짐이 얹어 쉬지 않고 '국수신분'을 매달라라니 그게 무슨
 로망이오" 하는 단죄도 말고 나와 직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일라
 나를 아끼어서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수전선' '나구리어'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이런 충고를 알아 드릴 수 없다
 나는 조선사람이라 애국자라 그래 북한 겨레들이 도한에 매져 신은
 하는 소리를 듣고도 나리러 수수 방관 하라는 말인가! 내가 아직 살아
 있는 한 북한 겨레에게 주우일로 반쯤이라도 도움이 될라년 말이고 나서
 갓다 신을 매달도 계속 하리라 또 이런 사람들을, 그 신분을 매달라라
 북한 안철원에게 절년 생명이 위험하라고 말한라, 그럴 수도 있라
 그러나 나는 겁쟁이 아니다. 그놈들을 잡아서 내할 일은 북이겠는가.

내가 "국수신분"을 가지고 "국제시장" (이시장이 중국인, 북한사람,
 미국인, 일본사람 기타 사람들이 일라고 해서 국제시장이라 부르라)
 으로 황태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이시장을 자꾸 말하기가 이런
 상인들이 내런 북이 안다. 나는 주로 북한 블라디 장사꾼들에게 신분을
 준다. "이신분이 어리서 말간 되는가" 하고 물는라 나는 "북한에서
 말할라" 하고 었는디한다. 중국에서 온 조선사람들이 "국수신분"을
 좋아 할라 또 가지라 노라나 나와 말라라.

내가 고피하는 낚시질 천도 이제 두갈 밖에 남지 않았라 고기잡는 재미도
 있거니와 북한 사람들과 말하는 재미도 있라 이제 그런 실례를 들어 볼라
 하자. 우리 짐에서 한 30분간 걸어가면 강변이 있라 여기에서이 짐이
 할라 배에서 내런 짐을 무스러기를 주어 먹으라고 고기들이 잘 붙여둔라 여름이던
 낚시질꾼들이 이강변으로 고기 낚으러 올라. 이강변에서 북한 림업 래플무가
 가깝라 그래서 래플무 사람들이 여기와 고기를 잡는라. 나는 이에 관심을
 두었라 이강에 와서 낚시질도 할겸 저북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할 수 있라고 생각했라 ~~경북고 알먹는 습이~~ ~~어려운~~ ~~기~~ ~~회~~ ~~문~~ ~~위~~ ~~라~~ ~~플~~ ~~무~~
~~사람들이 주어~~ ~~를~~ ~~할~~ ~~기~~ ~~위~~ ~~하~~ ~~는~~ ~~것~~ ~~이~~ ~~국~~ ~~수~~ ~~전~~ ~~선~~ ~~의~~ ~~위~~ ~~하~~ ~~는~~ ~~경~~ ~~양~~
~~고~~ ~~피~~ ~~하~~ ~~는~~ ~~재~~ ~~미~~

어떻게하면 낚시질 하려 나온 낚시꾼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
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이나 이강변으로 낚시질 하러 나온다 낚시질
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다 강변측에 있다 이것은 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일요일에 낚시도구를 가지고 강변으로 나왔다 살펴보니 낚시꾼들이
많아 대부분 사람들이 앞은 사람이 1인자되자 하나 밑까지 거기까지 여기 앞에는
좋겠습니까 하니 한 사람이 없으시요-한다 낚시꾼들 첫 인사가 "고기가
잘 잡습니까" 다 그래서 나도 첫 인사를 하니 한 작자가 - 그 딱지 알습니까-
한다 낚시도구를 펼쳐 놓고 낚시이끼를 끼어 물이 언젠가 쏠릴까가 내가
가지고간 "평양-모스크바" 노래가 녹음된 화중 녹음기는 틀어 놓고 듣기
시작했다 내 곁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살피다 나는 그 노래를 들
분취해 노래를 계속 듣는다 "평양-모스크바"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와 소련의 관계는 비 조국을 견지할 우리의
희망은 영원한 우리와 영원 영광이 있다. --

이 노래를 재차 듣노라 낚시질 주의를 나온 한 사람이 내 옆으로 왔다
나이가 한 삼십 대 보이는 이 사람은 뜻차림이나 걸음걸이는 밋밋하고
늘림 있다 이 사람이 나 보고-런감님 고기가 잘 됩니까? -한다 -내가
- 잘 안 됩니까 그래서 노래를 들습니까? - 하니 그 사람이 - 런감님 지금
듣고 계시는 그 노래를 어리서 구했습니까? -한다 내가 가지고 온 걸이요-
하니 이 사람이-런감님 지금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다 그래서
내가 - 노래도 부르는 법이 없노오- 했다 이런 레하가 그와 계속 했다.
이 사람이 "평양-모스크바" 를 듣고 무슨 자극을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선전 망식이 숙취하고 무슨 화전 같아 그러나 나는 미소한 효과
나타낸다고 본다. 누가 물어라 하련지 나는 알므로 이런 일은 계속 할
예정이다

북한에서 일어난다 왜 소련이 되돌아 왔고 ~~이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질문에 간간히 대답하겠다

이 물음이 나온 때를 뒤려보면 1950년대이 북조선에서 조실된 정씨를
대충 알아야 한다

쓰달릴 개인승에서 시가지 쏘련인 본들이 천이 장막에서 살았다
언론, 집회, 출판, 전사자수는 1인품이 그럴 람이 있다 어느 한 사람도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없다 소련 사람들은 내의 망명을 들은 자유, 내의 출판물은 극악한 자유가 막혔다 사람들이 세게 정세를 느끼고 쓰러질 때까지 무르고 살건의 사신이다 지금 북조선에서 쓰러질 개인들의 불같은 더 가혹한 형태로 계속 타르일라 알제시 때 내 외침들이 조선 인민의 자유를 막을려고 억울했다 그런 오늘에 와서 북한에서 제 사람이 제 사람을 한양하고 학살하고 있다 이 어둠이 계속될 수 없다

1953년에 쓰러질 이 죽었다 그러자 쓰러질 개인승애가 폭로 되기 시작되었다 1955년에 쓰러질 공산당 제 20차 당대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척했다 이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대담하게 쓰러질 개인 승애를 폭로했다 그러자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쓰러질 개인승애를 폭로한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흐루쇼프와 김일성은 이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쓰러질 개인승애의 충실한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소중관계 410마 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이 흐름을 타서 반소, 환중 정책을 시작했다고 지어는 소련 군대가 북조선은 해방한 것이 아니라 1억 두산이 죽은 조선 인민들이 북조선은 해방했다고 하고 알려지었고 라틴어화 운동에 관한 북조선의 코로시들 특히는 함구로서 연산시에 김일성의 코로시들은 세웠다 1945년 8월에 일본군은 패퇴무사코 이 도시가 착륙 노브라는 전대미문의 기적만을 주려내 가지고 자기인민 후리는 아예 끝은 속이 온다 사실은 김일성에게 무리가 목썬 뒤에 앞가 일본군의 호미에 말뚝이 꽂아 있어서 살길을 찾아 1946년에 소련 국경을 넘어와 레아루스크무근 야드스 12에 도착이 와 살았다 1945년에 북조선이 해방된 이후 흥한 많은 못 살아 보고 소련 군함을 해 9월 19일에 연산항에 내린 것은 개인주의의 사실이다

1955년에 열린 조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프라우다 시강이 원장 문공부, 직출 중앙위원회 위원장 서희, 문화선전성 부상 김강 2명이 노동당원들이 우리 당에서 개인승애가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일성이 손을 쓰는 마람이 문공부, 서희, 김강이 말중에 문공부도 언급했다 이런 일이 벌어 김일성은 자기 말판이 뒤흔들리가와 점나서 개인승애를 안대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은

확실히 계획적으로 2등을 목표로 하여 관남 해나 같은 강연들이
출간되고 후속적인 약속을 했다

바로 이 때에 중독공산당 대회가 목적이서 열렸고 이 때 북조선
에서 수 많은 간부들이 수참되고 열라는 보고를 듣고 평적화론 북조선이
파견하여 사해를 바로 잡기로 했다 쓰련까지의 커프안이 북조선으로
왔고 김일성이 커프안과 평적화론 조언을 듣고 출간된 말은
강연들은 북조선이었다 그러나 커프안과 평적화가 북조선이 아니라
김일성이 북이 내기 자기의 측근자들을 도와 주고 쓰련공산당과
중독공산당이 조선 운동감 내정이 간섭하라 이 즉 문적했다

1957년에 모스크바에서 각국공산당 및 운동감 대회를 가
했다 이 회의에서 단결화와 전쟁 당의 전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상 차이를 하여 문 해충이 고립됐다 이럴게 되자
문 해충이 목적이 돌아와 평적화를 김일성에게 보내며 중독공산당이
조선 운동감 내정이 간섭됐다 는 것은 사적화 김일성은 한 단 동안
목적으로 호칭했다 김일성은 이 호칭을 알고 중독이 되 돌아와 러
우 쪽에게 "사상검은" 라는 악명 높은 ^{판판} 주를 하여 때때로 사관
들은 대중적으론 칭찬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문 해충의 미화하기
"수정주의" "대국이나 국의" "우리는 만소정책은 근본적으로 실행한다

1955년 12월이 김일성은 소위 "주체사상"이란 개념을 내걸고
말과 알고 보면 "주체사상"의 진짜 내용은 변주주의다 쓰련련의
철의 장막 정책을 계속 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조선 변주주의 라는 말을
말을 짜라 하지 말 사실 "주체사상"은 스탈- 레닌주의와는 아무런
연연도 없다

쓰련련이 김일성을 음용 했는 데 왜 김일성이 만소를 했는가
하늘이 들이 생긴다 이상에서 말했지만 쓰련련이 눈을 감고
은 루소브가 쓰련련의 개인승계를 독려하는 마찰이 김일성은
자기 만능이 물이 깔아 질가 봐 점일감이 먹고 문 해충이 없는
하여 우선 쓰련에게서 문 해충은 문 조지 칭찬하기 시작했다
소년 관원에서 공참원으로 공참에서 쓰련공산당 강연이 된
쓰련간부들은 만소정신으로 프야하기 어려우려 하는 것을 깨
라를 김일성은 쓰련서문 간부들은 ~~수참하고~~ ~~공참까지~~ ~~출간까지~~

민자리에서 쫓아 내고 그들에게 날로 된 죄를 씨워 추모하리, 정어를 벌이고
지어는 충살까지도라

이이 대한 몇가지 실태를 들어볼지로 하자.

김일성이 려간 사상검론의 그릇이, 이찌 중양당 선전부관 '막침목,
문화선전성 부장 기석목, 장북, 중앙당 선전부에서 일하러 간 동혁
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박영인, 내각 무수장 '악이완' 이삼이 영도
수장은 이 검론라 허가이가 말로는 자살해라 하리만 사실은 암살
했다. 막침에 (일찌서찌 때 국제공산당이 타견으로 리하공작부분 명은
최이이라) '막침에' 녀사가 일찌 때 리하공작을 한물이 다른것을
느르느사함이 없라 특히 김일성이 리갈알고 일라 그런데 '막침에' 디
마지막 단령이 어 려기 됐는가? 간단히 말해 보라 김일성은 막침에
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잡아 레고 '막침에'가 례임상
으로는 정량치숙하라는것을 어떤지 알런서 고이적으로 막침에를 례임상
직기 끼리 쫓고 언라 안 돼서 그가 얻은 잘 못한라 레이 어 려라
그후 '막침에'의 운명이 비물비량하라

이찌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을 어떻게 살해했는가

이물은 쓰런서 못 묻어 아나라 열안에서 못 묻어라. 활자라 김일성은
인간들의 선자를 말는 김두봉 선생을 공화국 헌법은 질 많고 자기
가운데로 그를 농혼으로 내리갈라라음 고이게 르게 소를 죽어 결국
소가 말아서 세삼을 리나라 김두봉의 증언을 리하살 됐라는
말도 일라 그리나 저러나 이찌야 말로 품씨계적 야만행이라

이름난 작가 한철업, 리혜준, 동양이 이름은 려원현 무용가수 최승희,
간감자 신복출 그 많이 팔도 문인들, 예술인들이 학살됐라 이런
실태들은 리 계속할수 일라

이찌이 위음들이 수백명 리선혁 평자들은 추모하리 살해될라하면
저들은 김일성이 과거 혁명가들은 만조리 없애 버라르 일라 지어는
자기의 편을 짜지도 수형하리 일라 김일성은 자기이끼에 조금만
거슬릴 라면 부쿠나 할것 없이 감옥이 썰어 넣고 죽인라 개안술에이
후파가 마르르 이랄라 목르선 ~~이~~ 김두이다. '액침'은 총칼이 무서
워서 보면서도 말은 못하리 일라

보라! 수라장 같은 아리 무사 무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할
수 일갈는가. 아침생이름, 제양심을 파는놈들, 추모리리

때심자든만이 김일성, 김정일만세를 외치면서 인민들의 피를
먹으며 살 수 없다

지금까지 나는 대북조선에서 왔던 카라를 붙여서 개종 개종했다
이것이 라는 아니라 말은 다 같은 것 같으나 나의 가슴이 뚫힌 것이
아직도 많이

이산으로 끝낸다

南鳳植

4월 30일 1995년.

하마루스쿠.

700125. г. Ташкент,
З. Сайфулина, 5
Тянь Хакпону.

680020. г. Каваровск
ул. Молдавский переулок,
дом. 5, кв. 64
Налтонсик